

대전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 개발연구

장창수 · 배지연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원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배지연 / 도시경영연구실 비상임연구원

차 례

제1장 들어가는 글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6
제2장 입양과 입양가족의 이해	11
제1절 입양의 개념과 유형	11
제2절 입양가족의 경험 특성과 발달과업	1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
제3장 대전시 입양가족 현황과 제도	25
제1절 입양 관련 통계	25
제2절 입양정책 및 서비스	30
제4장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분석	41
제1절 입양가족 실태조사 개요	41
제2절 실태조사 결과분석	44
제3절 전문가 인터뷰(FGI) 조사	83
제5장 나오는 글: 입양가족 지원서비스의 정책과제	9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1
제2절 입양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96
참고문헌	105
부록	107

표 목 차

<표 2-1>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가족의 과업	19
<표 2-2> 입양가족 사후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21
<표 3-1> 국내 요보호아동의 발생현황 및 사후 보호	25
<표 3-2> 국내외 입양현황	26
<표 3-3> 국내 입양아동의 성 및 연령별 현황	27
<표 3-4> 국내입양 아동의 건강상태	28
<표 3-5> 국내 입양아동 발생 유형	28
<표 3-6> 국내 입양아동의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2013년)	29
<표 3-7> 대전광역시 구별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족 현황	30
<표 3-8> 입양특례법에 제시된 국내 입양사후서비스	32
<표 3-9> 국내 입양아동(가정)의 지원	35
<표 3-10> 중앙입양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38
<표 3-11> 국내 입양 사후관리사업 운영 기관	38
<표 4-1> 주요 조사내용	42
<표 4-2> 입양부모 양육행동 척도	43
<표 4-3> 응답자의 혼인상태 및 결혼기간	44
<표 4-4> 응답자의 결혼만족도 및 주관적 생활수준	45
<표 4-5> 응답자의 종교유무	46
<표 4-6> 입양부모의 연령	47
<표 4-7> 입양부모의 학력	48
<표 4-8> 입양부모의 직업	49
<표 4-9> 입양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50
<표 4-10> 입양부모의 질병 및 장애 유무	51
<표 4-11> 친생+ 입양가족과 입양가족 현황	51
<표 4-12> 입양아동의 연령(친자녀 제외한 후, 입양순위)	52
<표 4-13> 친생 및 (단독)입양가족의 입양자녀 수	53
<표 4-14> 입양아동의 출생순위별 현황	54
<표 4-15> 자녀를 입양하게 된 동기	55

<표 4-16> 입양가족 유형별 자녀 입양의 주된 동기	56
<표 4-17> 입양 결정 이전의 어려움(결정의 어려움)	57
<표 4-18> 입양아동의 선택시 고려한 사항	58
<표 4-19> 친생부모의 알권리와 뿌리찾기에 대한 생각	59
<표 4-20> 입양아동의 양육시 어려운 점	60
<표 4-21> 입양아동의 양육시 도움이 필요한 부문	61
<표 4-22> 입양가족의 지지체계(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은 곳)	62
<표 4-23>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참여 유무 및 기간	63
<표 4-24> 입양 자조모임의 참여 회수와 만족도	64
<표 4-25> 입양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65
<표 4-26> 입양의 형태	66
<표 4-27>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	66
<표 4-28>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	67
<표 4-29> 공개입양의 장점	68
<표 4-30> 공개입양의 단점	69
<표 4-31> 비밀입양의 이유(비밀입양 가족만)	70
<표 4-32> 입양의 만족도	71
<표 4-33> 향후, 입양 의향	71
<표 4-34> 입양에 대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72
<표 4-35>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빈도)	73
<표 4-36> 입양부모의 양육태도(평균)	74
<표 4-37> 입양부모 교육 및 전문상담 욕구	75
<표 4-38> 입양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 욕구	76
<표 4-39> 지역사회 편견해소 교육 및 홍보	77
<표 4-40> 입양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78
<표 4-41> 입양아동 연령별 프로그램 지원 욕구차이	80
<표 4-42> 입양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요구도	81
<표 4-43> 입양후 서비스의 필요 분야	8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체계도	8
<그림 4-1> 응답자의 혼인상태	44
<그림 4-2> 응답자의 결혼기간	45
<그림 4-3> 응답자의 주관적 생활수준	46
<그림 4-4> 응답자의 종교여부	46
<그림 4-5> 입양부모의 연령분포	47
<그림 4-6> 입양부모의 학력분포	48
<그림 4-7> 입양부모의 직업분포	49
<그림 4-8> 입양부모의 건강상태	50
<그림 4-9> 입양부모의 질병유무	51
<그림 4-10> 입양가족의 형태(친생+ 입양/입양)	52
<그림 4-11> 입양아동의 연령분포	52
<그림 4-12> (단독)입양가족의 입양 자녀수	53
<그림 4-13> 친생+ 입양가족의 자녀수	54
<그림 4-14> 입양의 동기	55
<그림 4-15> 가족유형별 입양의 동기	56
<그림 4-16> 입양결정 과정의 어려움	57
<그림 4-17> 입양아동의 선택시 고려사항	58
<그림 4-18> 입양아동의 주요 어려움	60
<그림 4-19> 입양아동 양육시 도움이 필요한 영역	61
<그림 4-20> 입양가족의 지지체계	62
<그림 4-21> 자조모임의 참여여부	63
<그림 4-22> 자조모임의 참여 횟수	64
<그림 4-23>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65
<그림 4-24> 입양의 형태	66
<그림 4-25>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	67
<그림 4-26>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	67
<그림 4-27> 공개입양의 장점	68
<그림 4-28> 공개입양의 단점	69

<그림 4-29> 비밀입양을 선택한 이유	70
<그림 4-30> 입양의 만족도	71
<그림 4-31> 향후, 입양에 대한 의사	72
<그림 4-32> 입양에 대한 타인에게 추천 의사	72
<그림 4-33> 입양부모의 양육태도(평균)	75
<그림 4-34> 입양부모 교육 및 전문상담 욕구	76
<그림 4-35> 입양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 욕구	77
<그림 4-36> 지역사회 편견해소 및 홍보	78
<그림 4-37> 입양아동의 경제적 지원	79
<그림 4-38> 입양가족 지원 욕구	81
<그림 4-39> 입양후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분야	82

제 1 장



들어가는 글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1장 들어가는 글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입양은 출산이 아닌 법적·사회적 절차를 통해 ‘가족’이 되는 것으로 보편적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경험하는 양육과 입양가족이 경험하는 양육의 세계는 다름이 존재 할 수밖에 없음. 또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입양가족은 비입양가족과 동일하게 ‘가족’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입양가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권지성 외, 2016).
-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새로운 부모와 가족이 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미혼모, 이혼과 학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호아동을 가정에서 대리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더 큰 안정감, 영속감, 친밀감, 소속감을 아동에게 주기 때문에 대체보호 방법 중 최선으로 여겨지고 있으나(박인선, 2001)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입양가족 지원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였음.
- 입양가족의 사후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양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에서 공개입양의 역사가 짧았고(1999년 한국입양홍보회 설립 시점), 국가의 지원 없이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입양부모가 담당했기 때문임. 2000년 이후 공개입양이 활성화되면서 입양부모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4년 입양아동 수당지급, 2011년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되기 시작하였음(권지성 외, 2016).
- 한편, 2012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적응을 관찰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양가정을 위한 상담창구의 개설과 상담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였음(입양특례법, 제25조).

- 최근 보호 (대상)아동의 성격은 한국전쟁(6.25) 직후의 전쟁고아와 혼혈 아동에서 고아는 사실상 사라지고 미혼모의 출산아동, 학대아동, 보호자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음(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흐름과 함께 입양의 성격과 문화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를 겪고 있음.
- 국내 아동 보호제도(대안양육제도)는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 시설, 입양 등이 있는데, 아동의 생존과 보호와 발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가정보보호와 대리양육을 할 때에는 가정형태의 보호를 강조하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양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과업이며 이에 적극적인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도 요청됨.
- 언급했듯이, 공개입양의 활성화 이후 입양 사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입양후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입양가족들은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고, 입양사후가족 지원이 없이는 입양아동이나 입양부모의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려움.
- 가령, 많은 입양부모들은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입양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입양아동에 대해 무례한 질문이나 언급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낌(Kirk, 1964; 옥수선·류기형, 2013에서 재인용).
- 또한 입양아동은 ‘불쌍한 아이, 문제가 많은 아이’ 라는 견해와 입양부모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해 입양가족을 특별한 시선으로 보거나 종종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묻지도 않은 의견이나 충고를 하는 등은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옴(김영화, 2003).
- 또한 입양은 입양아동이 입양가족이 되기 위한 성장과정, 즉 생애주기적인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아동

또는 입양가족의 생애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시 말해 입양 가족의 사후서비스 지원은 입양 후 생애 주기와 단계에 따른 도움(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함을 의미함.

- 요약컨대,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아동 삶의 질 증진, 건강한 입양가족 형성을 위해서는 입양사후 가족지원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현재, (공개)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입양아나 입양부모의 적응, 연장 및 장애인 입양가족, 입양아의 정체성 형성, 입양부모의 문제 대처와 지역사회의 입양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입양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입양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입양 후 가족지원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서 국내 입양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고, 입양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및 당사자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입양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입양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입양후 가족지원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 국내 입양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고, 입양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및 당사자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자 함.

1) 문헌연구

- 문헌조사를 통해 기술적·서술적 접근방법에 의해 입양의 개념, 입양가족의 특성, 입양 법과 최근의 이슈 등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였음.

2)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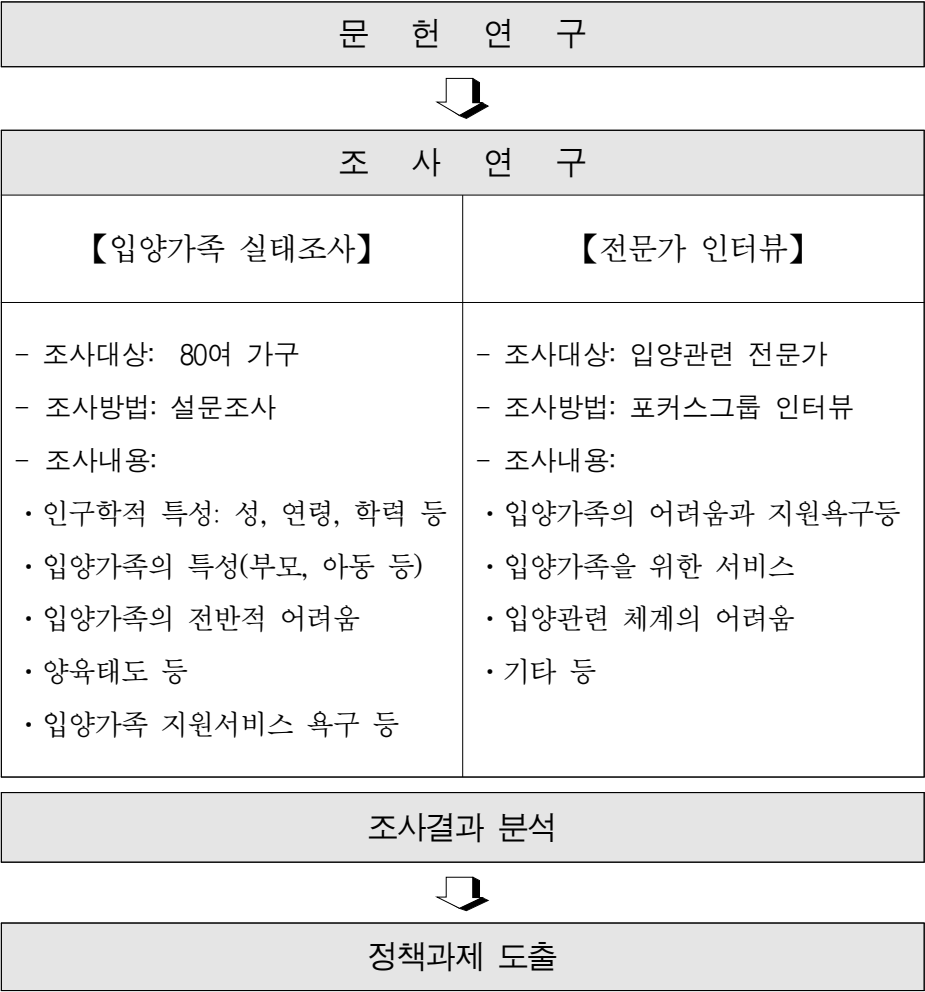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입양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입양기관 및 입양자조모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실시함.
- 조사개요
 - 조사대상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양기관 및 입양자조모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
 - 조사내용: 입양가족의 인구학적 특성과 입양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자조모임의 참여현황, 입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입양아동 양육의 어려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공개입양의 장점과 단점, 입양가족서비스 지원 욕구로 구성하였음.

3) 전문가 조사

- 대전광역시 담당공무원, 입양가족대표, 입양기관대표, 입양관련 전문가(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FGI)를 1회에 개최하였음.

2.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음.
 -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보고서의 구성을 서술하였음.
 - 제2장은 입양의 이해와 입양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조사를 실시함.
 - 제3장은 입양과 관련된 통계 및 입양아동의 현황, 현재 입양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4장은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아동과 입양서비스 지원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FGI)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 제5장은 주요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입양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음.



〈그림 1-1〉 연구체계도

제 2 장

입양과 입양가족의 이해

제1절 입양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입양가족의 경험 특성과 발달과업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입양과 입양가족의 이해

제1절 입양의 개념과 유형

1. 입양의 개념

-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으나 출생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친생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은 입양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족들 속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음. 가족이 필요한 성인과 아동에게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제도가 입양이라고 할 수 있음(박미정, 2014).
- 입양은 생물학적인 (출산)과정을 통해서는 아닌 법적 및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부모자녀의 친자관계를 맺는 대체가정서비스임. 입양은 아동복지차원에서 볼 때, 친부모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 아동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아동복지서비스로(박미정, 2014) 평가되고 있음.
- Kadushin(1980)은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이며,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가짐. 또한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친생부모가 아닌 성인(입양부모)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임(미국사회복지사전).
- 미국에서 입양은 입양 관련 삼자(adoption triang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입양된 아동, 입양부모와 친생부모간의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강조됨(김형모, 2001).

○ 중앙입양원(2012)에서는 입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함. 다양한 이유로 친생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자녀의 입양에 동의하면, 행정적·법적 절차를 거쳐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의 입양이 성립됨(중앙입양원. 2012).
-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의 (입양)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다시 말해, 입양은 ‘법률적인 관계’라는 것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어지는 아동의 매매 등은 입양이 아니며, 처벌 대상임.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끼리의 아동 거래는 불법적인 행위임.
- 입양을 ‘법률적인 관계’로 못 박는 이유는 입양되는 아동과 아기를 낳은 친생부모, 아기를 입양한 입양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임.

- ① 입양은 아동의 친 가정에서 부모 사망, 이혼, 임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양육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친 가정을 대신 할 수 있는 대리 가정을 찾아주는 것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임
- ② ‘법적인 과정’이라 함은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가족이 구성
- ③ ‘사회적인 과정’이라 함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됨과 동시에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임.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됨. 즉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사회적 과정으로 정의됨. 따라서 입양은 단순히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 아동만의 문제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음.

2. 입양의 유형

1) 공개의 여부

- 입양의 유형은 공개정도에 따른 공개입양, 비밀입양, 개방입양으로 구분되기도 함.
 - 공개입양은 입양 사실에 대해 입양아동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입양전 친생부모와는 접촉하지 않는 입양 형태임.
 - 비밀입양은 입양사실에 대해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며, 마치 입양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입양을 뜻함.
 - 개방입양은 공개입양과 비슷하지만, 아동 및 주변사람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도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입양임.
- 입양에 있어서 공개나 비밀이냐가 주는 함의는 비교적 큰 편임. 왜냐하면 ‘공개’ 여부에 따라서 입양자녀와의 관계나 입양아동의 정체성 형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공개입양의 타당성은 입양이 입양 삼자 중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비밀입양의 한계로부터 나왔음. 즉 생물학적 유전적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이고, 건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뿌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서 출발함. 입양아동들은 두 세트 이상의 부모들과 애착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관계에 혼동을 갖지 않으며, 아동은 양부모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음을 알 때 양부모를 더욱 부모로 받아들이고, 친부모들도 양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입양가정에 대해 알 때 보다 편한 마음으로 입양에 동의한다는 것임(박인선, 2001).

- 공개입양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입양부모는 공개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사가 드러날 수 있고(불임 등), 친생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상황을 밝혀야 될 수 있는 부분 등에서 그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경우, 입양실무 경험이 쌓여가고 관련 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비밀입양의 한계¹⁾가 더 분명해져서 공개입양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음(박인선, 2001).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공개입양 문화로 확산되어 공개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최근에는 공개입양이 정례화되는 추세이지만, 입양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20-30%정도의 부모들은 비밀입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비밀 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동이 사생아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양부모들은 친부모의 위협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친부모들은 입양 보낸 자녀들의 위협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언제까지나 입양가정이 친부모와 친자녀인 척 하며 입양사실을 비밀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비밀입양은 한계를 가짐. 비밀입양은 윤리적 한계를 가짐. 완전한 비밀입양은 양부모가 자신의 아동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 친부모가 입양 보낸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입양된 아동이 자신의 출신배경과 입양사유 및 뿌리에 관한 정보등 정체감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임(박인선, 2001).

2) 입양법의 구분에 따른 유형

- 현재 입양관련 법으로 입양은 3가지로 구분됨(중앙입양원, 2016년 홈페이지). 첫째,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과 둘째, 민법에 의한 양자입양, 셋째, 민법에 의한 친양자 입양임.

(1)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2012. 8.5 시행 개정특례법 기준)
 -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목적으로 함. 요보호아동이란 말 그대로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적 빈곤, 가족 해체, 사망 및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입양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음(중앙입양원, 2012).
 -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이를 통해 성립된 입양아동은 민법에 의한 친양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즉 입양아동은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되면 종료되며, 만약 입양을 파양하려할 경우,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함. 양자, 양친, 검사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중앙입양원, 2012).

(2) 민법에 의한 양자 입양

- 민법에 의한 양자 입양(2013. 7. 1 시행 개정민법 기준): 민법 제866조부터 908조에 의한 양자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다른 특징을 가짐. 입양의 성립을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주된 차이점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도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임.
 - 민법에 의한 양자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 파양이 가능함. 입양 부모, 입양인, 친생부모가 협의하면 되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양친,

양자, 친생부모, 후견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신청해야 함.

(3) 민법에 의한 친양자 입양

- 민법에 의한 친양자 입양은 민법에 의한 양자 입양에 비해 몇 가지 차이가 있음. 일반 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함.
-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에서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 양자와는 달리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됨.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있음.

제2절 입양가족의 경험 특성과 발달과업

1. 입양가족의 경험 특성

- 입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양아동과 가족은 입양과 관련된 고유한 욕구를 지니며, 입양이후에도 많은 요인들이 입양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안재진 외, 2013) 또한 입양부모들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입양부모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입양아동의 유전적인 특성, 산전경험, 출생환경, 기질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건강, 결혼상태, 가족관계,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과 같은 가족의 특성, 사회적 가치나 신념, 입양서비스 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무 등과 같은 지역사회 환경도 입양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침(안재진 외, 2013; 중앙입양원, 2014).

- 입양부모들은 입양이후에 입양부모로써의 고유한 욕구를 가지는데, 아동의 건강문제나 청소년기의 탈선 가능성, 친생부모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타인에게 입양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으며(김영화, 1997), 입양과 관련된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중앙입양원, 2014).
 - 특수욕구(special needs)를 가진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 및 정서문제는 입양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며 이는 특수욕구 아동을 입양한 가족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출처로 보고되고 있음(Rosenthal & Groze, 1990; Smith & Howard, 1999; 중앙입양원, 2014에서 재인용).
- 라이커스(Rycus) 등(2006)은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다룰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와 재원이 필수적이며, 입양아동 및 가족 서비스 전문가들이 입양의 고유한 역동과 입양가족이 직면하는 이슈들, 입양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커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입양기관의 입양사회서비스 미흡, 입양기관 내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 입양기관과 지역내 복지관들 간의 연계체계 부족 등이 입양후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였음(중앙입양원, 2014).
- 종합적으로 볼 때, 입양아동은 연장아, 장애아 뿐 아니라 가족과의 적응, 입양부모와 관련된 가족과의 적응, 학교 및 지역사회에의 적응 등으로 다양한 측면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입양가족의 특수성을 위한 입양가족 전문상담이나 심리적 지원을 받을 곳은 제한적임. (홀트)입양가정지원센터²⁾등이 입양가족 사후지원 서비스로의

2) 홀트 입양가정지원센터는 홀트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입양 사후 관련 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음(서울시 소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수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질적인 양육문제나 입양으로 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매우 적은 현실임.

2. 입양가족의 생애발달 과업

- 모든 가족은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입양가족도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가족만의 발달과업이 존재함.
- 첫째, 입양가족이 되기 위해서 입양 전 입양부모의 난임 및 불임의 문제에 대처하고, 입양을 결정해야 하는 과업이 존재함.
- 둘째, 유아기의 경우, 입양부모는 입양부모로서의 인식을 갖고, 부모역할 모델 찾기, 아동과의 애착형성 과업이 필요하며, 입양아동은 서서히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됨.
- 셋째, 학령전기에 입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해 입양아에게 공개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며, 입양아동도 입양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을 거침.
- 넷째로 학령기에 입양부모들은 아동이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게 돕고, 상실에 대처하게 하며, 친생가족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키우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함. 청소년기에도 지속되는 상실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고, 긍정적 가족관계형성과, 개방적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음.

〈표 2-1〉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가족의 과업³⁾

기간	입양부모	입양아동
입양전	불임의 문제에 대처하기 입양에 대해 결정하기 결연과정과 관련된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에 대처하기 입양결정을 위해 가족과 사회적 지지를 개발하기	
유아기	입양부모로서의 인식에 착수하기 입양에 관한 적절한 역할모델과 현실적인 기대 찾기 아동과 적응하고 애착 형성하기 아동의 친가족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시작하기	자신의 입양이야기 알기
학령전	입양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입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하기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한 가족분위기 만들기	자신의 입양이야기 알기 입양에 대해 부모에게 묻기
아동중기	아동이 입양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기 아동이 상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기 아동의 두 부모에 대한 합법성 설명하기 아동의 친가족에 대한 긍정적 사고 키우기 입양에 대해 개방적 의사소통 유지하기	입양의미 알기 상실에 대처하기 친생부모와 친권포기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기 입양과 관련된 낙인 다루기 입양에 대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자신의 두 부모의 관계 대해 이해하기
청소년기	계속되는 상실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기 친가족에 대한 긍정적 관점 키우기 10대의 관심과 계획을 지지하기 부모 찾기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개발하도록 도와주기 입양에 대해 개방적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입양에 대한 안정적 정체성 조정하기 입양의 상실 대처하기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다루기 부모찾기의 과정에 대해 탐색하기 부모와 입양에 대해 개방적 의사소통 유지하기

3) 김근용(2013). 입양가족. 블로그 발췌.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입양가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관련 연구로 구분되어지며, 다시 국내 입양 연구는 법·제도·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실천현장에서의 연구대상인 입양부모·아동·친생부모, 입양사회복지사 대상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
- 국내 입양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공개입양부모와 아동의 적응, 가족스트레스, 애착 등이며, 비밀입양부모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음. 또한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적응, 뿌리찾기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친생부모(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 그 밖에 파양, 입양 전(예비) 가정, 자조집단, 연장아동가족 대상, 일반인의 입양인식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입양가족의 사후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최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 이루어진 입양가족 사후서비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대열(1999) ‘국내입양 사후관리 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 백경숙과 변미희(2001)의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안재진 외(2013) ‘국내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권지성 외(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정도가 있음.
- 위의 관련 연구들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사후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 그러나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향후, 입양아동 및 가족의 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표 2-2> 입양가족 사후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유형	연구자(년도)	연구주제
연구 및 보고서	김대열(1999) 백경숙과 변미희(2001) 안재진 외(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권지성 외(2016)	- 국내입양 사후관리 - 공개입양부모 사후 서비스 기초조사 - 국내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화 -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국내 입양부모의 사후서비스 이용경험 연구

제 3 장

대전시 입양가족 현황과 제도

제1절 입양 관련 통계

제2절 입양정책 및 서비스

제3장 대전시 입양가족 현황과 제도

제1절 입양 관련 통계

1. 국내 요보호 아동의 발생현황

○ 국내 요보호 아동의 발생현황 및 사후보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혼 부모 아동은 감소하고 있으나,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아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 국내 요보호아동의 발생현황 및 사후 보호

(단위 : 명)

연도	계	발생유형					사후보호			
		기아	미혼 부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빈곤, 실직, 학대 등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소년 소녀 가정	입양
1995	4,576	1,227	1,285	149	1,915	-	2,819	505	780	472
2000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4,481	2,285	564	1,755
2003	10,222	628	4,457	79	595	4,463	4,824	2,393	500	2,506
2007	8,861	305	2,417	37	748	5,354	3,245	3,378	247	1,991
2010	8,590	191	2,804	210	772	1,623	4,842	2,124	231	1,393
2012	6,926	236	1,989	50	708	1,570	3,748	2,289	117	772
2013	6,020	285	1,534	21	512	3,668	2,532	2,265	20	478
2014	4,994	282	1,226	13	508	2,965	2,384	1,688	13	393

출처: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 국내외 입양현황

- 2015년 국내 입양은 64.6%, 해외 입양은 35.4%로 2007년 이후 국내입양의 활성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입양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내 입양 우선추진을 실시하였음.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정책과 입양의 사회적 인식제고 등으로 인해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입양 비율이 해외 입양의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입양아동 수는 2000년 4,04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1,172명으로 2,874명이 감소하였음.

〈표 3-2〉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명)

구분	계	2006년 이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45,600	227,983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국 내	79,088 (32.2%)	68,939 (30.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국 외	166,512 (67.8%)	159,044 (69.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출처: 보건복지부(2015년). 국내외 입양현황.

3. 국내 입양 아동의 현황

1) 입양아동의 성과 연령

- 2015년 국내 입양 아동은 남아가 32.5%, 여아가 67.5%로 여아에 대한 선호도는 2013년 이후로 지속되고 있음. 연령은 3~11개월 아동이 57.7%, 1~3세 미만 아동이 31.5%로 나타났다.

〈표 3-3〉 국내 입양아동의 성 및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국내입양						
	계	성별		연령			
		남	여	3월 미만	3월~1세 미만	1~3세 미만	3세 이상
2013	686	203 (29.6%)	483 (70.4%)	39 (5.7%)	548 (79.9%)	72 (10.5%)	27 (3.9%)
2014	637	223 (35.0%)	414 (65.0%)	20 (3.1%)	398 (62.5%)	167 (26.2%)	52 (8.2%)
2015	683	222 (32.5%)	461 (67.5%)	29 (4.2%)	394 (57.7%)	215 (31.5%)	45 (6.6%)

출처: 2015년 국내외 입양현황(보건복지부).

2) 입양아동의 건강상태

- 2015년 국내 입양아동의 96.5%가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분류되었으며, 미숙아·저체중 등 건강이상 아동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국내입양 아동의 건강상태

(단위: 명)

연도	국내입양				
	계	건강양호	건강이상		
			계	미숙아~ 저체중아	기타
2013	686	657(95.8%)	29(4.2%)	27	2
2014	637	614(96.4%)	23(3.6%)	20	3
2015	683	659(96.5%)	24(3.5%)	20	4

3)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

- 2015년 국내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은 미혼부모 아동이 90.5%, 유기아동 7.9%로 나타났음. 2013년 이후로 미혼부모 아동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유기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5〉 국내 입양아동 발생 유형

(단위 : 명)

연도	국내입양			
	계	미혼(부)모아동	유기아동	기타
2013	686 (100%)	641 (93.4%)	24 (3.5%)	21 (3.1%)
2014	637 (100%)	578 (90.7%)	28 (4.4%)	31 (4.9%)
2015	683 (100%)	618 (90.5%)	54 (7.9%)	11 (1.6%)

출처: 보건복지부(2015). 국내외 입양현황.

4) 입양아동의 양부모 소득과 친자유무

- 2013년 국내 입양아동의 양부모의 친자유무를 살펴보면, 친생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3명(32.5%), 친자가 없는 경우가 463명(67.5%)으로 나타났다.

〈표 3-6〉 국내 입양아동의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2013년)

(단위: 명)

구분	계	친자유무	
		친자 있음	친자 없음
계	686(100.0)	223(32.5%)	463(67.5%)
최저생계비이하	8(1.2%)	1	7
차상위 120% 이하	9(1.3%)	6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172(25.1%)	59	11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20%이하	101(14.7%)	25	7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20%초과	396(57.7%)	132	264

출처: 보건복지부(2013년). 국내외 입양현황.

4.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통계

- 대전광역시 입양가구 수는 323가구이며, 서구 거주가정이 9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79가구, 중구 67가구, 동구 41가구, 대덕구 40가구로 나타났다.
- 양육수당 아동은 354명으로 남자는 139명(39.3%), 여자는 215명(60.7%)로 나타났다.

〈표 3-7〉 대전광역시 구별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족 현황

구별	가구 n(%)	양육수당 대상			비고
		계 n(%)	남 n(%)	여 n(%)	
계	323(100.0)	354(100.0)	139(39.3)	215(60.7)	
중 구	67(20.7)	71(100.0)	26(36.6)	45(63.4)	
서 구	96(29.7)	104(100.0)	46(44.2)	58(55.8)	
동 구	41(12.7)	44(100.0)	16(36.4)	28(63.6)	
대덕구	40(12.4)	46(100.0)	22(47.8)	24(52.2)	
유성구	79(24.5)	89(100.0)	29(32.6)	60(67.4)	

출처: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6년 9월 기준).

제2절 입양정책 및 서비스

1. 국내 입양 법과 입양 후 서비스

1) 입양특별법과 요보호 아동 정책

- 국내 정부의 요보호 아동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정책임. 요보호아동 출생 방지와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임. 둘째, 국내입양 및 위탁 보호 정책으로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시설보호가 아닌 위탁가정보호를 활성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이는 국내입양가정 및 입양기관의 재정적인 지원, 국내 입양 담당자 확보 및 국외입양 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전환임.

- 셋째, 국외입양 억제정책으로 국외 입양의 중단계획과 국외입양기관 및 국외입양 대상아동 제한임(정용주, 2011). 국내 아동보호체계는 원가정 및 국내 대안가정 중심으로 두며, 아동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박미정, 2014). 요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국내입양이 시설보호, 일가친척의 대리입양, 국외입양 또는 가정위탁양육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음(정용주, 2011; 홍순혜 외, 2007; 박미정, 2014에서 재인용).
- 입양의 저해요인으로 입양아동의 적응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 및 혈연 위주 제도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정주영, 2011; 홍순혜 외, 2007).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양부모는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있으나, 사후 입양가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2) 입양특례법에 제시된 입양사후서비스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전쟁고아와 혼혈 아동의 해외입양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1970년대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로 대부분의 요보호 아동은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들이었으며, 이들은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음(정용주, 2011). 1976년에는 국내외 입양과정과 절차 간소화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음.

- 1995년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과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음(신윤정 외, 2014).
- 2011년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다시 입양특례법으로 다시 전면 개정되었음. 개정이유는 아동의 입양절차가 아동의 복리증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내 입양 우선추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숙려제,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등을 법령에 명시하였음. 양부모 자격조건 또한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등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 및 절차가 양부모 중심으로부터 아동중심으로 대폭 강화하였음(박미정, 2014).
- 입양특례법에 제시된 국내 입양사후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령, 가정조사보고서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후 1년 이내 4회 이상의 가정방문을 통해 작성하도록 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밖의 규정은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표 3-8> 입양특례법에 제시된 국내 입양사후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입양 사후관리 (입양특례법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2. 입양 후 가족지원 서비스

- 현재 우리나라는 요보호아동에게는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환경 제공을 최우선 복지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가정보호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현재 입양가족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일부의 아동수당지급과 의료비지원 외에는 입양가족 전문상담이나 가족치료 등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임. 현재, 정부차원의 입양가족지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중앙정부의 지원

(1)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비용(수수료)을 입양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입양전문기관은 270만원, 입양지정기관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2)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심리치료비 지원

-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입양 아동(만18세 전)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3)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18세 미만의)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되면 연간 260만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과 국립의료원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음(만 18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2) 지방정부 및 기타 서비스

(1) 입양축하금

-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양된 가족에게 입양축하금이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동은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2) 입양 양육수당 추가지원과 교육비 지원

- 정부지원의 양육수당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입양 아동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3)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및 의료비 추가지원

- 입양아동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거나, 정부지원 외에 의료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일부 있음.

(4) 기타 지원제도

- 기타, 공무원 입양휴가제가 있는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함. 일부 공기업에서도 입양한 가족에게 일정기간의 입양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표 3-9〉 국내 입양아동(가정)의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정부 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 (전문기관 27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
	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 (만 16세 전, 월 15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 (만 18세 전)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천원, 경증 및 기타 월 551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연 260만원 한도)
	심리치료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만 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지방 정부	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일부 지자체 미 실시) :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서울특별시) : 고등학교 입양아동에게 매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
	상해보험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부산과 경북) : 만 12세 이하 입양아동(장애아동 포함)
	양육수당 추가지원	양육비 추가지원(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강남구 등) : 정부지원 + 5만원 또는 10만원)
	의료비 추가지원	의료비 추가지원(서울시 강남구) : 기존 연간 260만원 + 연간 40만원 추가
기타	입양 휴가	입양휴가제 : 공무원, 공기업(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 등) 실시
	기타 (조례)	광주광역시등은 입양아동이 만18세 미만일 경우 기존의 국 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 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지원(다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비 추가 지원)

3)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근거는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 연장(6개월→1년) 및 서비스 제공 내용 명시(법 제25조 및 시행령5조)” 에서 제시하고 있음.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인력 및 예산의 문제로 입양 후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양가족 지원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첫째,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에 필요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둘째,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셋째,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선 및 상담원 배치 등임.

- 입양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입양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가정조사, 입양아동 및 부모 교육,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상담, 입양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권지성 외, 2016).
- 첫째, 입양 후 가정조사는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함. 두 번째로 입양아동 및 부모 교육은 입양 후 아동과 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과 건전한 발달·양육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발달적 위기를 극복·예방하며, 입양가정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함.
- 세 번째로 입양 후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삼자가 심리적·정서적·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네 번째로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사례관리는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인 1년 이후에 시작하

며,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하며, 필요한 경우 성인입양인도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아동의 권익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입양원’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의 주된 업무는 국내입양활성화, 입양서비스 체계화, 입양 사후관리 전문화,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과 관련된 것임. 중앙입양원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입양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입양가족의 교육, 다양한 입양가족을 위한 행사지원에 있음.

- 사후관리 서비스는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제공, 생애주기별 적응, 입양부모의 역량 강화 등임. 또한 입양가족 교육은 입양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등임.

○ 중앙입양원의 서비스 외에 민간기관인 홀트, 대한, 동방, 한국입양홍보회 등에서도 입양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10> 중앙입양원 사후관리 프로그램

	내용
입양가족 심리 정서 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 입양아동이 생애주기별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고, 입양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입양부모 또한 자녀와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제공됨
입양가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 가족교육을 통해,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 입양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교류할 수 있음 - 입양아동 또한 자신의 입양 사실을 건강하게 인지하고,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제공 - 양육정보·공개입양 여부·입양 관련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이 실시됨
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부모 및 입양인이 공통의 활동을 통해 단합할 수 있는 사업임 - 입양가족의 단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입양가족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의 밤, 체험활동 등의 형태로 이뤄짐 - 입양가족은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함께 만나고 활동할 수 있음. 또한 입양가족들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표 3-11> 국내 입양 사후관리사업 운영 기관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대한사회복지회	입양가족 대상 교육지원
동방사회복지회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교육지원
성가정입양원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해성보육원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교육지원, 행사지원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입양가족 대상 교육지원

제 4 장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입양가족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결과분석

제3절 전문가 인터뷰(FGI) 조사

제4장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입양가족실태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충청), 동방아동복지회(대전)와 입양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대전)의 도움을 받아서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훈련된 조사원 2명(입양부모)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입양가족의 부모를 대면조사하거나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한편, 일부 설문지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우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응답자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전자우편 주소로 설문지 파일을 첨부하여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 표본은 100여 가구를 표본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조사에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비밀 및 공개입양가족이 있어서 설문조사가 쉽지 않았으며, 실제 설문지는 76가구가 응답하였으며, 최종 76가구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음.

2. 조사내용

-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입양가족의 인구학적 특성과 입양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자조모임의 참여현황, 입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입양아동 양육의 어려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공개입양의 장점과 단점, 입양가족서비스 지원 욕구로 구성하였음.

- 입양부모의 양육행동 측정은 한국판 양육행동 척도(PSCQ)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하였음. 이 척도는 원래 23문항이었으나, 문장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8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였음. 양육행동 척도는 온정, 거부, 구조, 자율성지지, 혼란, 강제 등 총 6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중 온정, 구조, 자율성지지 하위요인은 자녀의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에 거부, 혼란, 강제 하위요인은 자녀의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함(정교영·신희천, 2011).

<표 4-1> 주요 조사내용

구분		문항수
입양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거주지, 연령, 직업, 건강상태, 결혼상태, 결혼기간, 결혼만족도, 종교, 주관적 생활수준	10
입양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자녀수, 연령, 입양당시연령, 성별, 입양여부, 건강상태	6
입양관련 어려움	- 자조모임 참여도(기간, 횟수, 만족도), 입양동기, 입양전 어려움, 입양시 우선 고려사항, 양육의 주된 어려움, 입양후 도움 받은 곳, 도움의 필요성, 입양아동의 알권리, 뿌리찾기	13
입양부모의 양육행동	-입양스트레스(1)와 양육행동(15)	16
공개입양시 생각의 변화	- 입양만족도, 입양 의사, 공개 범위, 공개전후 생각의 변화, 비밀입양의 이유	7
가족서비스 욕구	- 교육 및 지원의 필요성(13) - 대전광역시의 지원 정책의 요구(2)	14

〈표 4-2〉 입양부모 양육행동 척도

하위요인	문항
온정	1.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3.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4.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거부	5.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6.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7. 이따끔 나는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구조	8.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혼란	9. 나는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 둔다
	1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자율성	11. 나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듣기 힘들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2.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강제	13. 우리 아이에게 뭔가 하게 하려면,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
	14. 나는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15.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3.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t-검증) 등을 실시하였음.

제2절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입양부모·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 응답자의 혼인상태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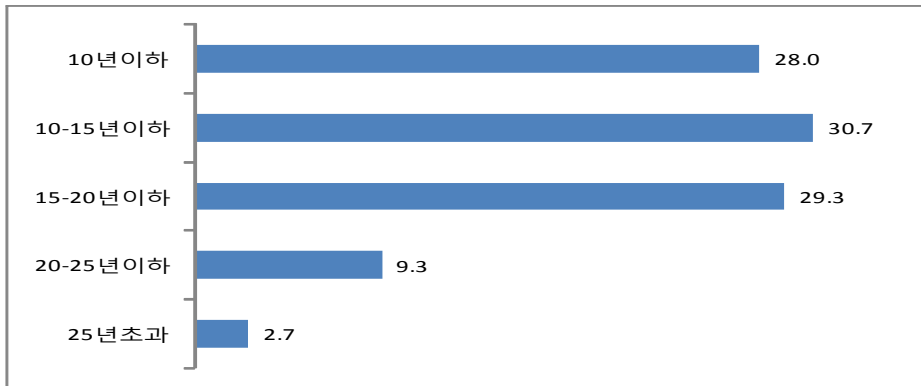
○ 본 조사의 응답자는 입양가족 내, 부모 중 한사람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결혼상태는 ‘유배우자’라는 응답자가 70명(92.1%), 미혼 2명(2.6%), 재혼 2명(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0-15년 이하가 23명(30.7%), 15-20년 이하가 22명(29.3%), 10년 이하 21명(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혼인 기간은 1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의 혼인상태 및 결혼기간

혼인상태	빈도	%	결혼기간	빈도	%
유배우	70	92.1	10년 이하	21	28.0
사별	1	1.3	10-15년 이하	23	30.7
미혼(독신)	2	2.6	15-20년 이하	22	29.3
재혼	2	2.6	20-25년 이하	7	9.3
기타	1	1.3	25년 초과	2	2.7
계	76	100.0	계	75	100.0



〈그림 4-1〉 응답자의 혼인상태



〈그림 4-2〉 응답자의 결혼기간

(2) 응답자의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 응답자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4.19점(± 0.71)/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결혼만족도 중에서, ‘만족’이라는 응답이 35명(46.1%),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은 28명(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면, ‘중간’이 58명(76.3%), ‘중상’이 11명(14.5%), ‘중하’가 3명(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의 결혼만족도 및 주관적 생활수준

결혼만족도	빈도	%	주관적 생활수준	빈도	%
매우불만	-		하	2	2.6
불만족	-		중하	3	3.9
보통	13	17.1	중간	58	76.3
만족	35	46.1	중상	11	14.5
매우만족	28	36.8	상	2	2.6
계	76	100.0	계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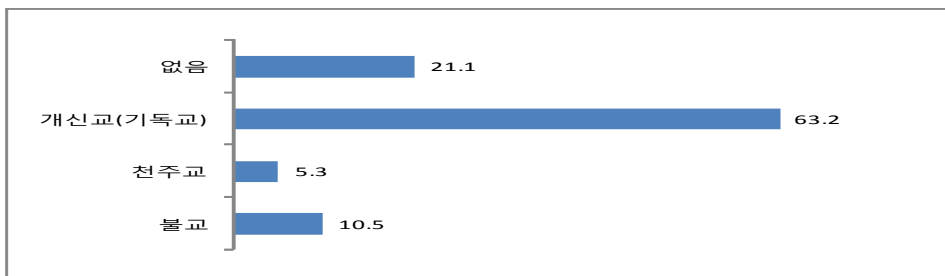
〈그림 4-3〉 응답자의 주관적 생활수준

(3) 응답자의 종교 유무

- 응답자의 종교는 개신교가 48명(63.2%)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 없음’이 16명(21.1%), ‘불교’가 8명 10.5%, 천주교 4명(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응답자의 종교유무

구 분	빈도	%
없음	16	21.1
개신교(기독교)	48	63.2
천주교	4	5.3
불교	8	10.5
기타	-	-
계	76	100.0



〈그림 4-4〉 응답자의 종교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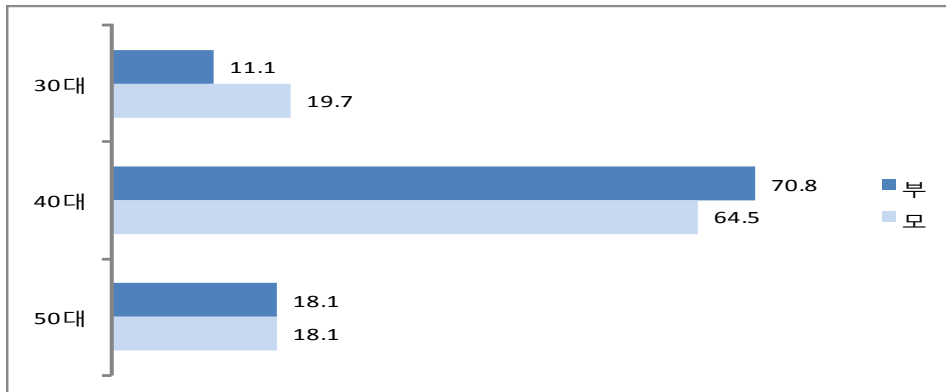
2) 입양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1) 입양부모의 연령

- 입양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0대가 51명(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13명(18.1%)인 것으로 나타났음. 어머니의 경우도 40대가 49명(64.5%), 50대가 (18.1%)인 것으로 나타났음.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5.6세(± 4.9)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4.1세(± 5.2)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입양부모의 연령

구분	부		모	
	빈도	%	빈도	%
30대	8	11.1	15	19.7
40대	51	70.8	49	64.5
50대	13	18.1	12	18.1
계	72	100.0	76	100.0



<그림 4-5> 입양부모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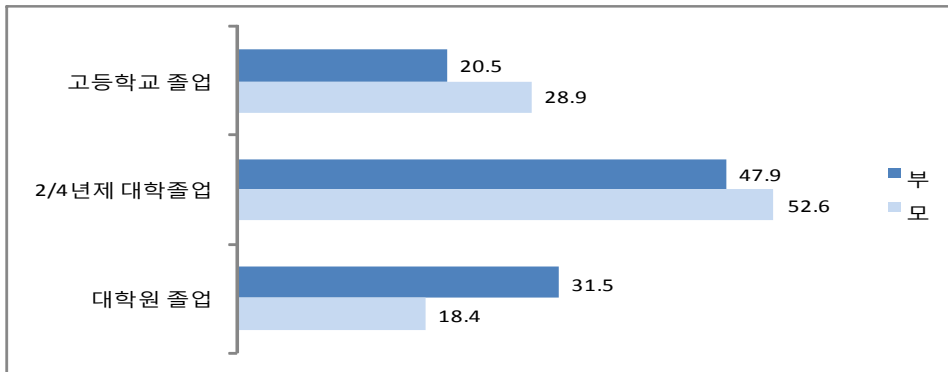
(2) 입양부모의 학력수준

- 아버지의 학력은 2/4년제 대학(중퇴)졸업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이 23명(31.5%)인 것으로 나타났음. 어머니의 학력은 2/4년제

대학졸업자가 52.6%로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22명(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입양부모의 학력

구분	부		모	
	빈도	%	빈도	%
고등학교 졸업	15	20.5	22	28.9
2/4년제 대학졸업	35	47.9	40	52.6
대학원 졸업	23	31.5	14	18.4
계	73	100.0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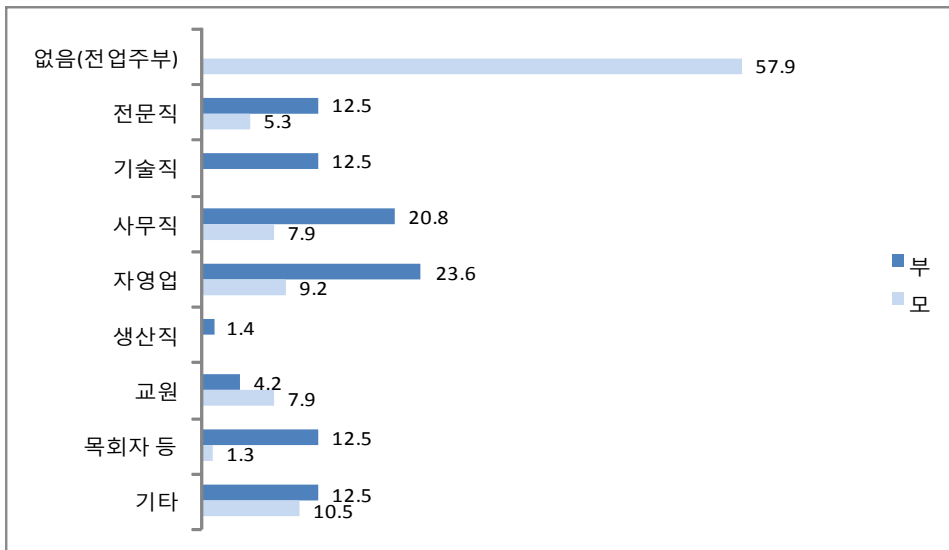
〈그림 4-6〉 입양부모의 학력분포

(3) 입양부모의 직업

-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23.6%, 사무직이 20.8%, 목회자 등이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없음’ (전업주부)인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9.2%), 사무직(7.9%), 교원(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입양부모의 직업

구분	부		모	
	빈도	%	빈도	%
없음(전업주부)	-		44	57.9
전문직	9	12.5	4	5.3
기술직	9	12.5	-	
사무직	15	20.8	6	7.9
자영업	17	23.6	7	9.2
생산직	1	1.4	-	
교원	3	4.2	6	7.9
목회자 등	9	12.5	1	1.3
기타	9	12.5	8	10.5
계	72	(100.0)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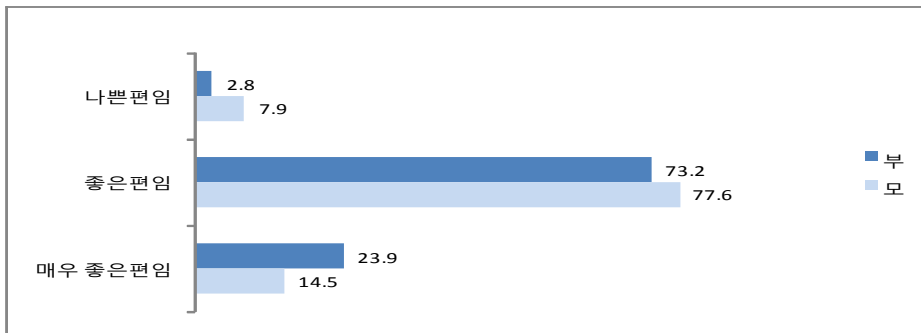
〈그림 4-7〉 입양부모의 직업분포

(4) 입양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 아버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라는 응답자가 73.2%, 어머니는 77.6%가 좋다고 응답함. ‘건강이 좋지 않음’이라는 응답자는 아버지가 2.8%, 어머니가 7.9%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9〉 입양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부		모	
	빈도	%	빈도	%
매우 나쁨	-	-	-	-
나쁜 편임	2	2.8	6	7.9
좋은 편임	52	73.2	59	77.6
매우 좋은 편임	17	23.9	11	14.5
계	71	100.0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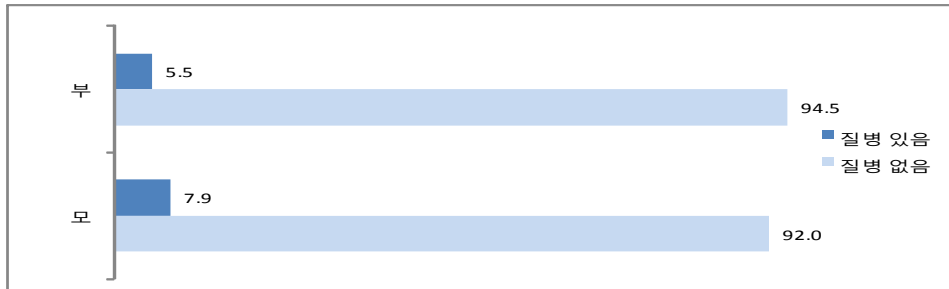
〈그림 4-8〉 입양부모의 건강상태

(5) 입양부모의 질병 및 장애유무

- 입양부의 장애유무 조사결과, ‘장애 없음’ 이라는 응답이 73명(100.0%), 어머니는 2명(2.6%)이 ‘장애 있음’ 에 응답함. 질병의 유무의 경우, 아버지는 4명(5.5%), 어머니는 6명(7.9%)이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응답자의 질병으로는 갑상선암, 신부전증, 당뇨, 뇌경색, 유방암, 뇌경색 등으로 나타났음.

〈표 4-10〉 입양부모의 질병 및 장애 유무

구분		부		모	
		빈도	%	빈도	%
장애유무	있음	-	-	2	2.6
	없음	73	100.0	74	97.4
질병유무	있음	4	5.5	6	7.9
	없음	69	94.5	69	92.0



〈그림 4-9〉 입양부모의 질병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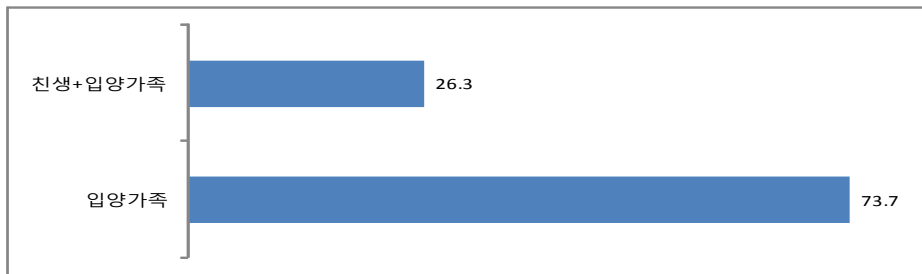
3) 입양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1) 입양가족의 유형

- 대전광역시 입양가구 76가구 중 입양만을 통해 가족이 된 가구 수는 56가구(73.7%)이며, 친생자녀+입양자녀를 통해 가족이 된 가구 수는 20가구(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친생+입양가족과 입양가족 현황

구분	빈도	%
친생+입양가족	20	26.3
입양가족	56	73.7
계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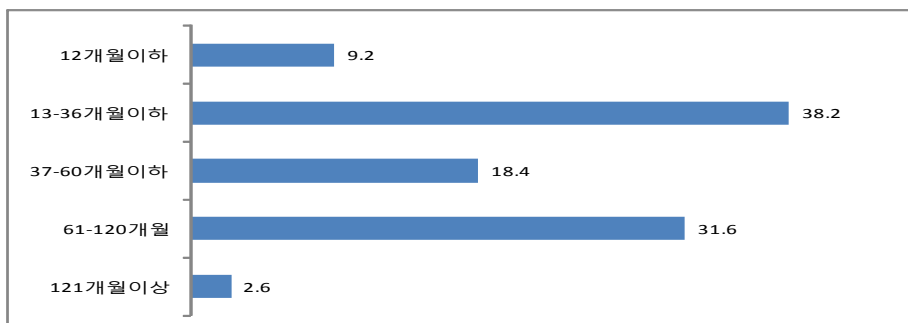


〈그림 4-10〉 입양가족의 형태(친생+입양/입양)

- 대전광역시 입양가구 76가구 중 친자녀를 제외한 후, 입양아동의 입양 순서에 첫째 입양아동의 현재 연령을 살펴보면, 만5세 미만의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6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5세 이상 및 학령기 아동이 34.2%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2〉 입양아동의 연령(친자녀 제외한 후, 입양순위)

구분	빈도	%
12개월 이하	7	9.2
13-36개월 이하	29	38.2
37-60개월 이하	14	18.4
61-120개월	24	31.6
121개월 이상	2	2.6
합계	76	100.0



〈그림 4-11〉 입양아동의 연령분포

(2) 입양가족의 유형별 자녀수

○ 대전광역시 입양가구 76가구 중 입양만을 통해 가족이 된 가구 수는 56가구(73.7%)이며, 입양자녀는 총 66명으로 1가구당 1.18명을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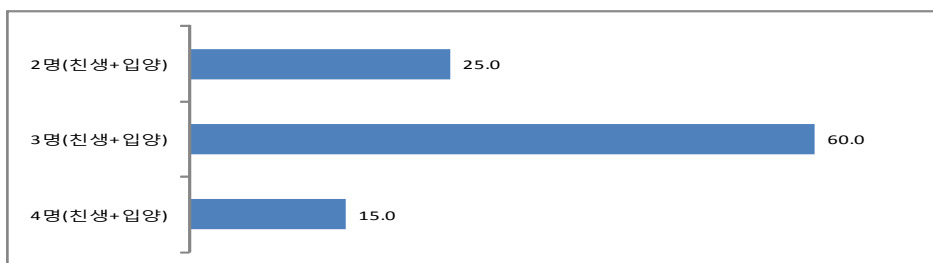
- 친생자녀+입양을 통한 가구 수는 총 20가구(26.3%)로 입양자녀는 총 24명이며 1가구당 1.2명을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녀수(친생+입양)는 58명으로 가구당 자녀수는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친생 및 (단독)입양가족의 입양자녀 수

구분			빈도	%	자녀수
(단독)입양을 통한 가정	입양가족	1명	46	82.1	66명
		2명	10	17.9	
친생+입양을 통한 가정	친생자녀 수	1명	8	40.0	34명
		2명	10	50.0	
		3명	2	10.0	
	입양자녀 수	1명	16	80.0	24명
		2명	4	20.0	
	친생+입양	2명	5	25.0	58명
		3명	12	60.0	
		4명	3	15.0	



〈그림 4-12〉 (단독)입양가족의 입양 자녀수



〈그림 4-13〉 친생+입양가족의 자녀수

(3) 입양자녀의 출생순위별 현황

- 대전광역시 입양가구 76가구 중 입양된 아동은 90명이며, 이중 첫째 자녀로 입양된 경우가 56명(62.2%), 둘째로 입양된 자녀가 19명(21.1%), 셋째 12(13.3%), 넷째 3명(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현황에서도 여아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입양아동의 출생순위별 현황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재연령	12개월이하	7	12.5	1	5.3	2	16.7
	13-36개월이하	19	33.9	10	52.6	4	33.3
	37-60개월이하	11	19.6	3	15.8	4	33.3
	61-120개월이하	18	32.1	4	21.1	2	16.7
	121개월 이상	1	1.8	1	5.3	-	-
입양당시 연령	1-3개월	38	73.1	10	62.5	7	70.0
	4-6개월	9	17.3	2	12.5	2	20.0
	6-12개월	2	3.8	4	25.0	1	10.0
	12개월 이상	3	5.8	-	-	-	-
성별	남아	22	39.3	11	57.9	5	41.7
	여아	34	60.7	8	42.1	7	58.3
건강	건강한 편	56	100.0	17	89.5	-	-
	허약한 편	0	0	2	10.5	-	-
계		56		1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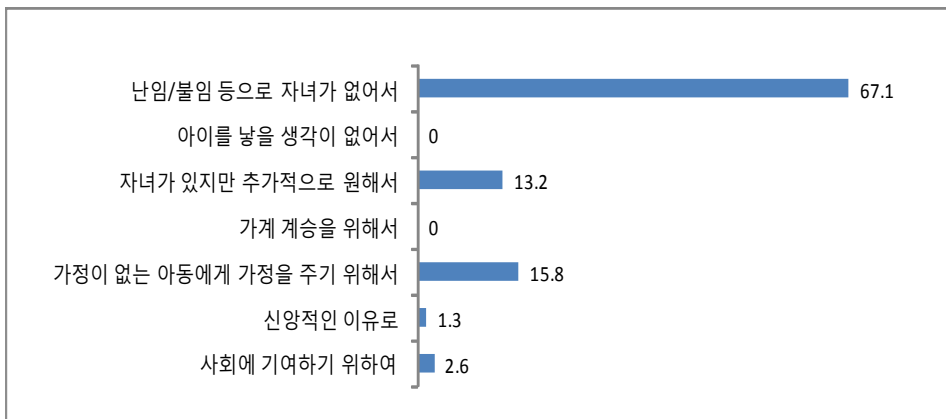
2. 입양의 동기와 과정

1) 입양의 동기

- 입양부모들의 입양의 주된 동기는 ‘난임/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1명(67.1%)로 높았으며,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해서’는 12명(15.8%), ‘자녀를 추가적으로 원해서’라는 응답이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자녀를 입양하게 된 동기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난임/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	51	67.1	-	-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서	-	-	2	5.0
자녀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원해서	10	13.2	2	5.0
가계 계승을 위해서	-	-	3	7.5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해서	12	15.8	25	62.5
신앙적인 이유로	1	1.3	6	15.0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2	2.6	2	5.0
계	76	100.0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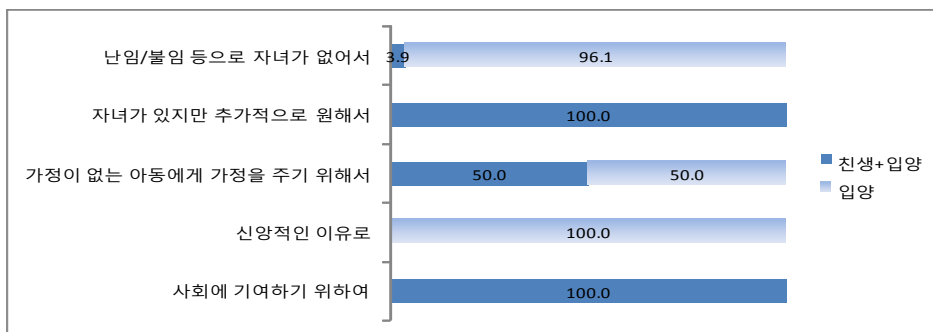
〈그림 4-14〉 입양의 동기

- 입양부모의 유형 중에서 친생+입양 가족과 입양가족이 입양 동기는 교차분석결과, 친생+입양가족의 입양의 주된 동기가 ‘자녀를 추가적으로 원해서’ 라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입양가족은 ‘난임/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입양문화가 여전히 ‘난임/불임’ 가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긍정적이거나 친자녀가 있지만 입양을 하는 가정이 1/4가정이므로 향후 입양홍보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됨.

〈표 4-16〉 입양가족 유형별 자녀 입양의 주된 동기

구분	친생+입양		입양	
	빈도	%	빈도	%
난임/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	2	3.9	49	96.1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서	-	-	-	-
자녀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원해서	10	100.0	-	-
가계 계승을 위해서	-	-	-	-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해서	6	50.0	6	50.0
신앙적인 이유로	0	0	1	100.0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2	100.0	0	0
계	20	100.0	56	100.0

$$\chi^2=50.619(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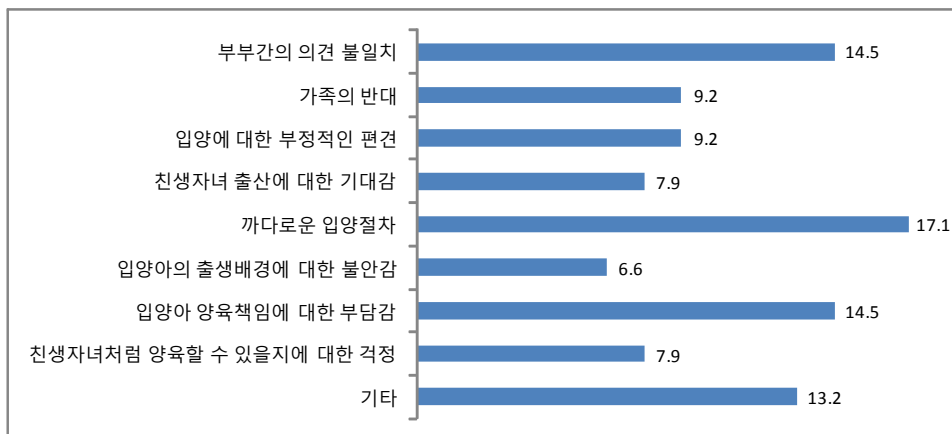
〈그림 4-15〉 가족유형별 입양의 동기

2) 입양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어려움

- 입양가족의 입양결정하기 이전 어려움의 1순위로는 까다로운 입양절차가 (17.1%) > 입양아의 출생배경에 대한 불안감(14.5%) > 부부간의 의견 불일치(14.5%)로 나타났음. 2순위 응답에서는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감(21.6%) > 까다로운 입양절차(19.6%) > 친자녀처럼 키울 수 있을지 걱정(19.6%)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17〉 입양 결정 이전의 어려움(결정의 어려움)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부부간의 의견 불일치	11	14.5	2	3.9
가족의 반대	7	9.2	2	3.9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7	9.2	8	15.7
친생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감	6	7.9	-	-
까다로운 입양절차	13	17.1	10	19.6
입양아의 출생배경에 대한 불안감	5	6.6	8	15.7
입양아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감	11	14.5	11	21.6
친생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6	7.9	10	19.6
기타	10	13.2		
계	76	100.0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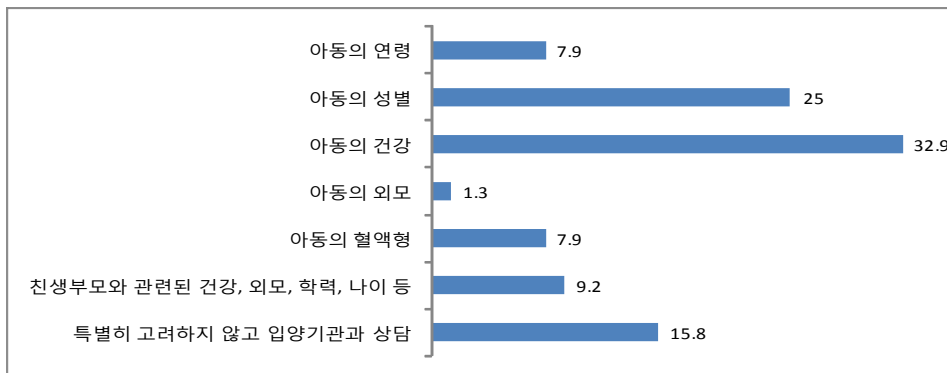
〈그림 4-16〉 입양결정 과정의 어려움

3) 입양 아동의 선택시 고려한 사항

- 입양아동의 선택시 고려한 사항에 대한 1순위로는 아동의 건강(32.9%) > 아동의 성별(25.0%) >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15.8%)의 순으로 나타났음. 2순위에서도 건강, 성별, 연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18〉 입양아동의 선택시 고려한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아동의 연령	6	7.9	7	12.3
아동의 성별	19	25.0	10	17.5
아동의 건강	25	32.9	19	33.3
아동의 외모	1	1.3	1	1.8
아동의 혈액형	6	7.9	5	8.8
친생부모와 관련된 건강, 외모, 학력, 나이 등	7	9.2	6	10.5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입양기관과 상담	12	15.8	9	15.8
계	76	100.0	57	100.0



〈그림 4-17〉 입양아동의 선택시 고려사항

4) 친생부모의 알권리와 뿌리찾기에 대한 생각

- 친생부모가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입양부모들의 68.5%가 ‘전혀 + 별로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 그렇게 생각한다’ 는 응답은 26.4%로 나타났음.
- 입양아동이 반드시 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전혀 + 별로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5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 그렇게 생각한다’ 는 응답은 42.1%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찾을 때, 대처방식에 대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는 응답이 69.7%인 것으로 나타났음. 입양부모들은 친생부모에 대한 알권리와 뿌리찾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반대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인의 입양자녀의 뿌리찾기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표 4-19> 친생부모의 알권리와 뿌리찾기에 대한 생각

구분		친생부모의 알권리		뿌리찾기	
		빈도	%	빈도	%
알권리와 뿌리찾기에 대한 생각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겠다	4	5.3	5	6.6
	전혀 그렇지 않다	17	22.4	7	9.2
	별로 그렇지 않다	35	46.1	32	42.1
	그렇게 생각한다	16	21.1	27	35.5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4	5.3	5	6.6
뿌리찾기에 대한 대처방식	아직 모르겠다	-		7	9.2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		53	69.7
	소극적이라도 도울 것이다	-		12	15.8
	뿌리찾기를 반대한다	-		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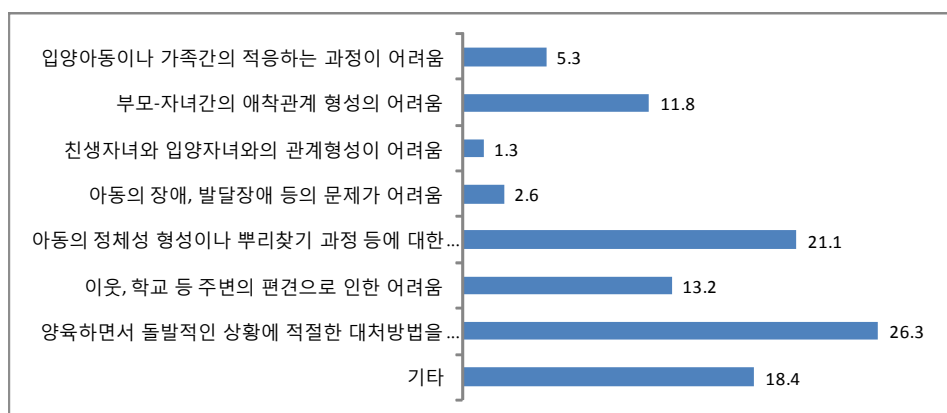
3. 입양 후 양육의 어려움과 지원

1) 입양 아동의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 입양아동의 양육시 어려운 점 1순위 응답으로는 ‘돌발적인 상황의 대처 방법’에 대한 문항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의 정체성 형성 & 뿌리찾기’ 문항이 21.1%, ‘이웃/학교 등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입양아동의 양육시 어려운 점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입양아동이나 가족간의 적응하는 과정이 어려움	4	5.3	-	-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 형성의 어려움	9	11.8	1	2.3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움	1	1.3	-	-
아동의 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가 어려움	2	2.6	2	4.7
아동의 정체성 형성이나 뿌리찾기 과정 등에 대한 고민이 어려움	16	21.1	15	34.9
이웃, 학교 등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10	13.2	14	32.6
양육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몰라서 어려움	20	26.3	9	20.9
기타	14	18.4	2	4.7
계	76	100.0	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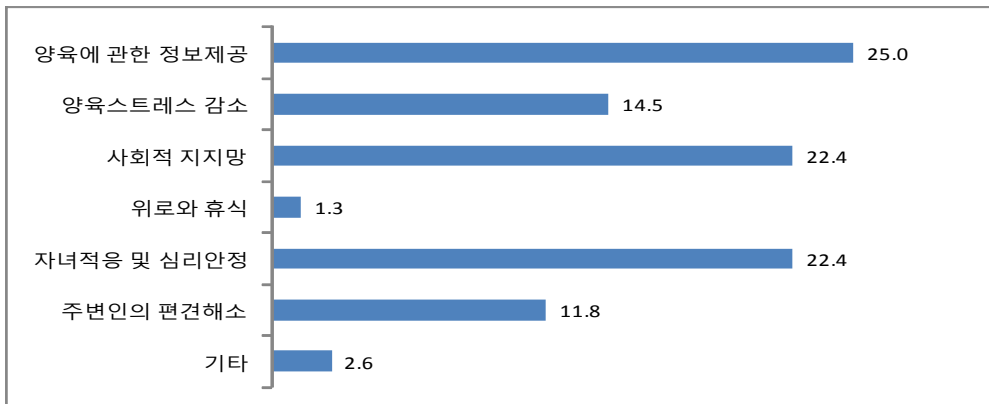
〈그림 4-18〉 입양아동의 주요 어려움

2) 입양 아동의 양육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문

- 입양아동을 양식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양육에 관한 정보(25.0%) > 자녀적응 및 심리안정(22.4%) > 사회적 지지망(22.4%) > 양육 스트레스 감소(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입양아동의 양육시 도움이 필요한 부문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19	25.0	13	20.0
양육스트레스 감소	11	14.5	5	7.7
사회적 지지망	17	22.4	14	21.5
위로와 휴식	1	1.3	4	6.2
자녀적응 및 심리안정	17	22.4	12	18.5
주변인의 편견해소	9	11.8	16	24.6
기타	2	2.6	1	1.5
계	76	100.0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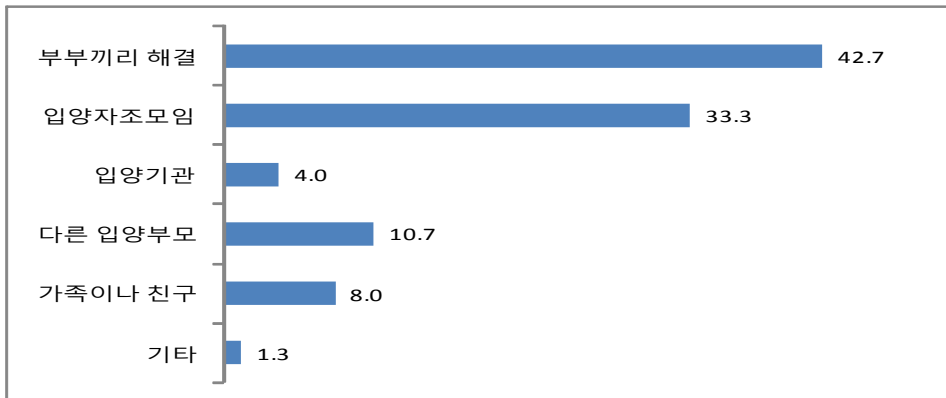
〈그림 4-19〉 입양아동 양육시 도움이 필요한 영역

3) 입양 후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는 곳

- 입양 후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은 곳은 부부끼리 해결(42.7%) > 입양 자조모임(33.3%) > 다른 입양부모(10.7%)인 것으로 나타났음. 2순위 응답에서는 가족이나 친구(22.6%) > 입양자조모임(19.4%) > 다른 입양모임(17.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22〉 입양가족의 지지체계(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는 곳)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부부끼리 해결	32	42.7	8	12.9
입양자조모임	25	33.3	12	19.4
입양기관	3	4.0	8	12.9
다른 입양부모	8	10.7	11	17.7
입양관련 인터넷 카페 등	-	-	4	6.5
일반 상담기관	-	-	2	3.2
가족이나 친구	6	8.0	14	22.6
기타	1	1.3	3	4.8
계	75	100.0	62	100.0



〈그림 4-20〉 입양가족의 지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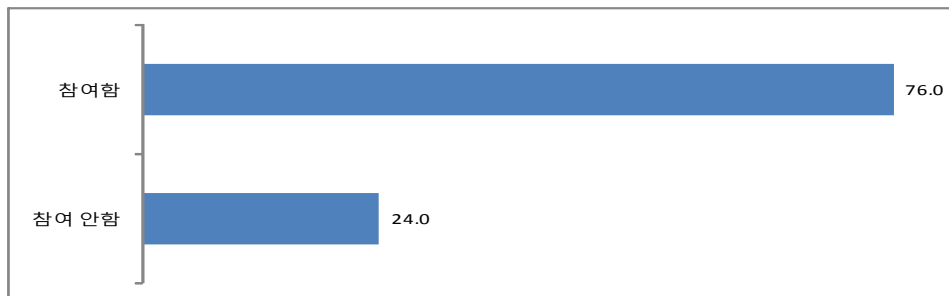
3. 입양자조모임 참여 현황

1) 자조모임의 참여 유무 및 기간

-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 참여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가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⁴⁾.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기간은 3년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68.4%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된 응답자도 26.3%로 높게 나타났음.

〈표 4-23〉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참여 유무 및 기간

구분	구분	빈도	%
참여여부	참여함	57	76.0
	불참	18	24.0
참여기간	1년 미만	21	36.8
	1~3년 이하	18	31.6
	3~5년 이하	3	5.3
	5년 이상	15	26.3
계		57	100.0



〈그림 4-21〉 자조모임의 참여여부

4) 표본을 표집 할 때, 자조모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임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자조모임의 참여 횟수 및 만족도

-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 참여회수는 1개월에 1번에 60.7%, 2개월 또는 분기별로 1회가 3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 만족도는 4점 만점 척도에서 만족함 63.0%, 매우 만족함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입양 자조모임의 참여 회수와 만족도

구분	구분	빈도	%
참여 회수	1개월 1회	34	60.7
	2개월 1회 또는 분기	22	39.3
참여만족도	불만족	3	5.6
	만족함	34	63.0
	매우 만족	17	31.5
계		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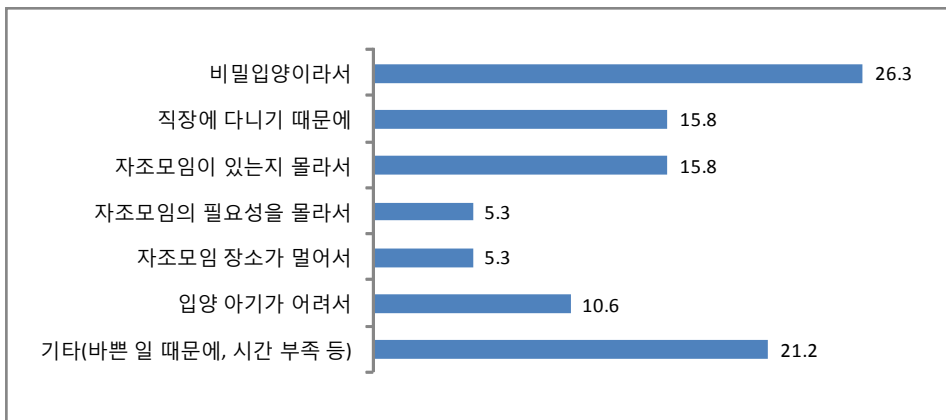
〈그림 4-22〉 자조모임의 참여 횟수

3)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밀입양 26.3%, 바쁜 일과 시간부족이 21.2%, 직장에 다녀서 15.8%, 모임을 잘 몰라서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입양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
비밀입양이라서	5	26.3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3	15.8
자조모임이 있는지 몰라서	3	15.8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몰라서	1	5.3
자조모임 장소가 멀어서	1	5.3
입양 아기가 어려서	2	10.6
기타(바쁜 일 때문에, 시간 부족 등)	4	21.2
계	19	100.0



〈그림 4-23〉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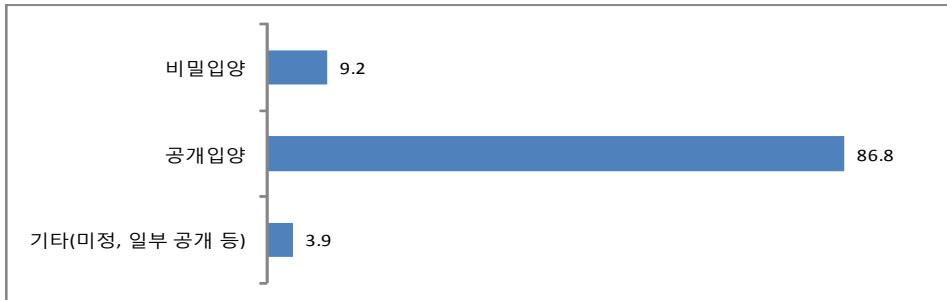
4.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

1) 공개입양의 유무

- 응답자 중 공개입양은 86.8%, 비밀입양은 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3.9%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6〉 입양의 형태

구분	빈도	%
비밀입양	7	9.2
공개입양	66	86.8
기타(미정, 일부 공개 등)	3	3.9
계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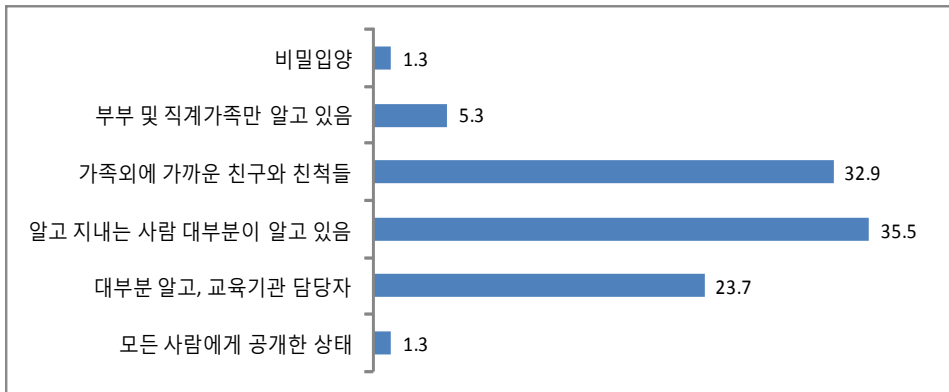
〈그림 4-24〉 입양의 형태

2)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

-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경우’가 35.5%, ‘가족 외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32.9%, ‘대부분 알고, 아동이 아닌는 교육기관’인 경우가 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

구분	빈도	%
비밀입양	1	1.3
부부 및 직계가족만 알고 있음	4	5.3
가족 외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	25	32.9
알고 지내는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음	27	35.5
대부분 알고, 교육기관 담당자	18	23.7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 상태	1	1.3
계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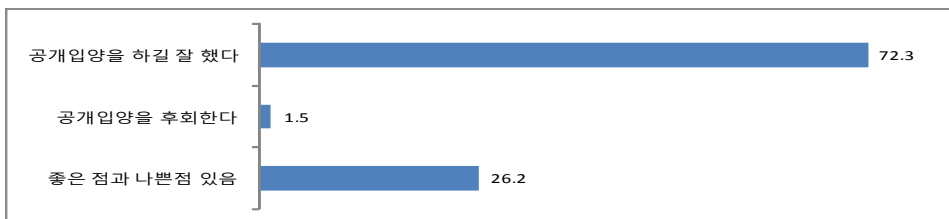
〈그림 4-25〉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

3)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

- 공개입양 하길 잘 했다는 응답자 72.3%, 좋은 점과 나쁜 점 둘다 있음이라는 응답자가 26.2%, ‘후회한다’는 응답자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	%
공개입양을 하길 잘 했다	47	72.3
공개입양을 후회한다	1	1.5
좋은 점과 나쁜 점 있음	17	26.2
계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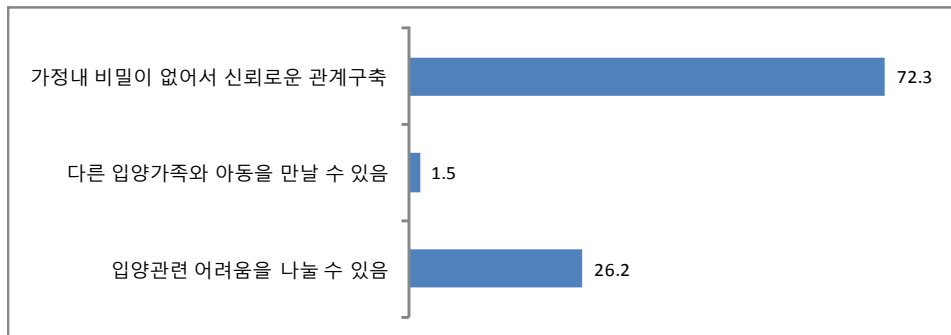
〈그림 4-26〉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

4) 공개입양의 장점과 단점

- 공개입양의 장점으로는 ‘가정 내 비밀이 없어서 신뢰관계 형성’ 이 72.3%, 입양관련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서가 26.2%로 나타났다.

〈표 4-29〉 공개입양의 장점

구분	빈도	%
가정 내 비밀이 없어서 신뢰관계 구축	47	72.3
다른 입양가족과 아동을 만날 수 있음	1	1.5
입양관련 어려움을 나눌 수 있음	17	26.2
다른 사람에게 숨길필요가 없어 당당함	-	-
기타	-	-
계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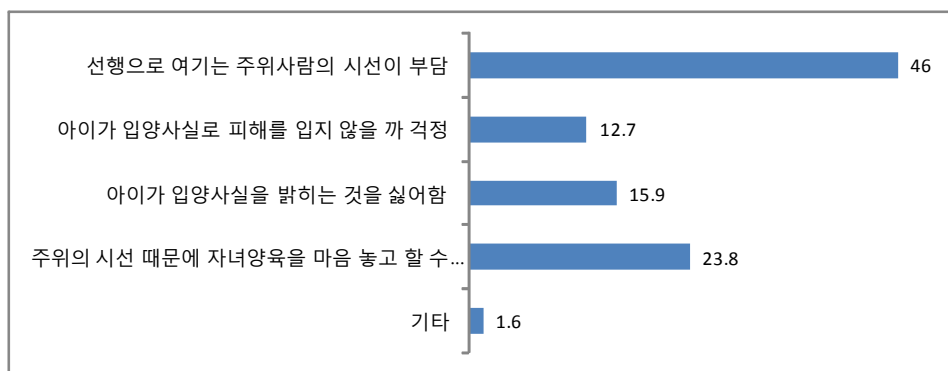


〈그림 4-27〉 공개입양의 장점

- 공개입양의 장점으로는 ‘가정 내 비밀이 없어서 신뢰관계 형성’ 이 72.3%, 입양관련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서가 26.2%로 나타났다.

〈표 4-30〉 공개입양의 단점

구분	빈도	%
선행으로 여기는 주위사람의 시선이 부담	29	46.0
아이가 입양사실로 피해를 입지 않을 까 걱정	8	12.7
아이가 입양사실을 밝히는 것을 싫어함	10	15.9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자녀양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음	15	23.8
기타	1	1.6
계	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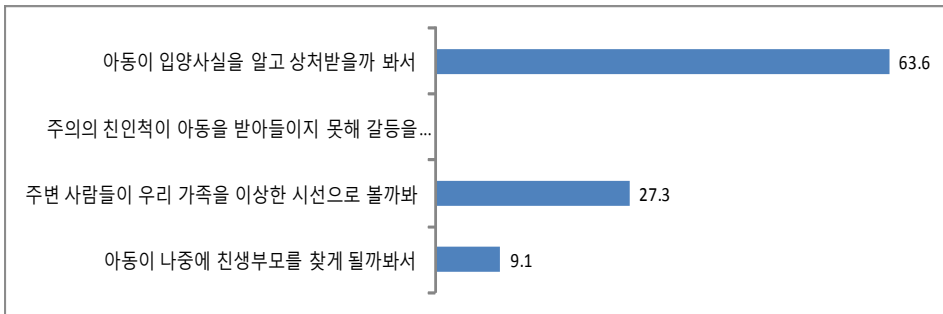
〈그림 4-28〉 공개입양의 단점

5) 비밀입양인 경우

- 비밀입양가족이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입양아동의 상처 때문에’ 라는 응답이 63.6%가 가장 많았으며, ‘주변사람들이 입양가족을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라는 이유가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비밀입양의 이유(비밀입양 가족만)

구분	장점	
	빈도	%
아동이 입양사실을 알고 상처받을까 봐서	7	63.6
주의의 친인척이 아동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을 야기할까봐	-	-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3	27.3
아동이 나중에 친생부모를 찾게 될까봐서	1	9.1
기타		
계	11	100.0



〈그림 4-29〉 비밀입양을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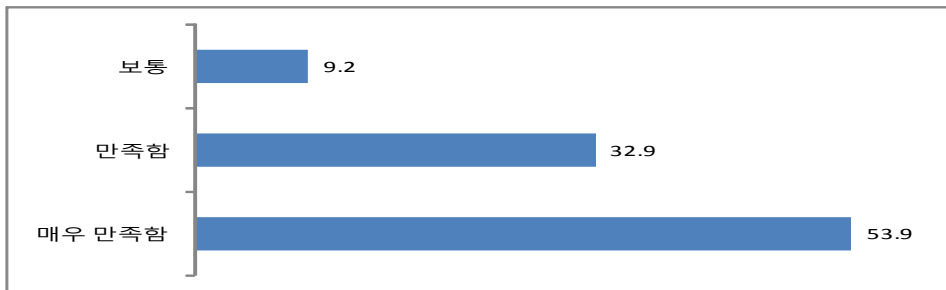
5. 입양의 만족도 및 친생부모의 알 권리에 대한 생각

1) 입양 후 만족도

- 입양 후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53.9%가 ‘매우 만족’에 응답하였으며, 13.1%가 보통+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4-32〉 입양의 만족도

구분	빈도	%
매우 불만족	3	3.9
불만족	-	-
보통	7	9.2
만족함	25	32.9
매우 만족함	41	53.9
계	76	100.0



〈그림 4-30〉 입양의 만족도

2) 향후 (추가적)입양 의향

- 향후, 입양에 대한 의향 조사 결과, 입양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경우가 3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경우가 39.5%,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6.3%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3〉 향후, 입양 의향

구분	빈도	%
입양의사 없음	30	39.5
잘 모르겠음	20	26.3
입양의사가 있음	26	34.2
계	76	100.0



〈그림 4-31〉 향후, 입양에 대한 의사

3) 입양에 대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 입양에 대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3.4%로 매우 높았으며, 없음이라는 경우는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입양에 대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구분	빈도	%
추천 의향 있음	71	93.4
추천 의향 없음	3	3.9
잘 모르겠음	2	2.6
계	76	100.0



〈그림 4-32〉 입양에 대한 타인에게 추천 의사

6. 입양 후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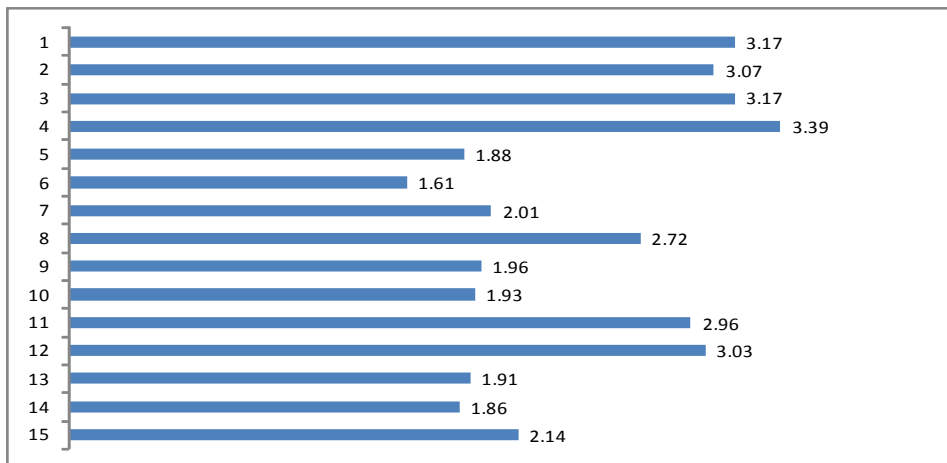
-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3.56점(± 1.98)으로 비교적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양부모의 양육행동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4-36> 참조).
 -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온정’ 과 관련한 점수(1-4번 문항)는 3.07~3.3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거부’ 와 관련한 점수(5-7번 문항)는 1.88~2.01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구조’ 와 관련한 점수(8번 문항)는 2.72점으로 비교적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혼란’ 과 관련한 점수(9-10번 문항)는 1.93~1.96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자율성’ 과 관련한 점수(11-12번 문항)는 2.96~3.03점으로 비교적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강제’ 와 관련한 점수(13-15번 문항)는 1.91~2.14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빈도)

문항	매우 그렇 지않 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N(%)	N(%)	N(%)	N(%)
1.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2 (2.6)	7 (9.2)	43 (56.6)	24 (31.6)
2. 나는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2 (2.6)	8 (10.5)	49 (64.5)	17 (22.4)
3.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1 (1.3)	6 (7.9)	48 (63.2)	21 (27.6)
4.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2 (2.6)	3 (3.9)	34 (44.7)	37 (48.7)
5.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16 (21.1)	53 (69.7)	7 (9.2)	-
6.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37 (48.7)	33 (43.4)	5 (6.6)	1 (1.3)
7. 이따끔 나는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21 (27.6)	33 (43.4)	22 (28.9)	-
8.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3 (3.9)	23 (30.3)	42 (55.3)	8 (10.5)
9. 나는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17 (22.4)	45 (59.2)	14 (18.4)	-
1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중잡을 수 없다.	17 (22.4)	47 (61.8)	12 (15.8)	-
11. 나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2 (2.6)	14 (18.4)	45 (59.2)	15 (19.7)
12.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 (1.3)	10 (13.2)	51 (67.1)	14 (18.4)
13. 우리 아이에게 뭔가 하게 하려면,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	17 (22.4)	49 (64.5)	10 (13.2)	-
14. 나는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18 (23.7)	51 (67.1)	7 (9.2)	-
15.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15 (19.7)	36 (47.4)	24 (31.6)	1 (1.3)

〈표 4-36〉 입양부모의 양육태도(평균)

구분	양육태도	
	평균	sd
1.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3.17	.70
2. 나는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3.07	.66
3.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3.17	.62
4.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3.39	.69
5.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1.88	.54
6.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1.61	.67
7. 이따끔 나는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2.01	.76
8.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2.72	.70
9. 나는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1.96	.64
1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1.93	.62
11. 나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듣기 힘들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2.96	.70
12.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3.03	.61
13. 우리 아이에게 뭔가 하게 하려면,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	1.91	.59
14. 나는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1.86	.56
15.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2.14	.74



〈그림 4-33〉 입양부모의 양육태도(평균)

7.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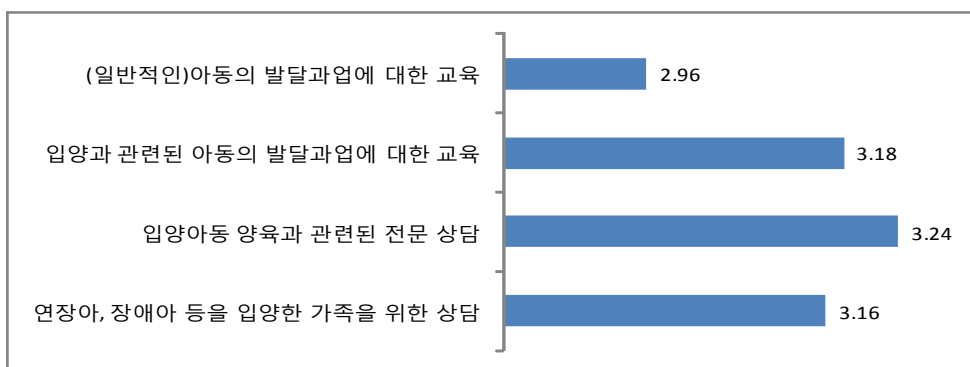
1) 입양아동 및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욕구

(1) 입양부모 교육 및 전문상담

- 입양아동과 관련된 전문상담에 대한 욕구가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양과 관련된 아동발달과업 교육이 3.18점, 연장아 및 장애아 입양가족을 위한 상담이 3.16점, 일반아동발달 교육은 2.96점으로 나타났다.

〈표 4-37〉 입양부모 교육 및 전문상담 욕구

구분	필요치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	평균	S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일반적인)아동의 발달과업에 대한 교육	5 (6.6)	11 (14.5)	42 (55.3)	18 (23.7)	2.96	.81
입양과 관련된 아동의 발달과업에 대한 교육	1 (1.3)	10 (13.2)	39 (51.3)	26 (34.2)	3.18	.71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된 전문 상담	2 (2.6)	5 (6.6)	42 (55.3)	27 (35.5)	3.24	.69
연장아, 장애아 등을 입양한 가족을 위한 상담	4 (5.3)	10 (13.2)	32 (42.1)	30 (39.5)	3.16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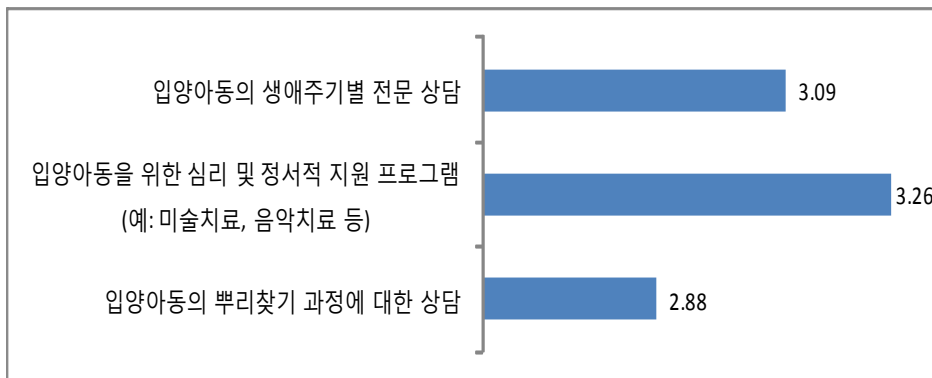
〈그림 4-34〉 입양부모 교육 및 전문상담 욕구

(2) 입양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

- 입양아동 상담과 관련해서는 심리 및 정서적 치료에 대한 욕구가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애주기별 전문상담이 3.09점, 뿌리찾기 상담이 2.88점으로 나타났다.

〈표 4-38〉 입양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 욕구

구분	필요치 않음	보통 임	필요함	매우 필요	평 균	S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입양아동의 생애주기별 전문 상담	4 (5.3)	8 (10.5)	41 (53.9)	23 (30.3)	3.09	.79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예: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2 (2.6)	9 (11.8)	32 (42.1)	33 (43.4)	3.26	.77
입양아동의 뿌리찾기 과정에 대한 상담	5 (6.6)	18 (23.7)	34 (44.7)	19 (25.0)	2.88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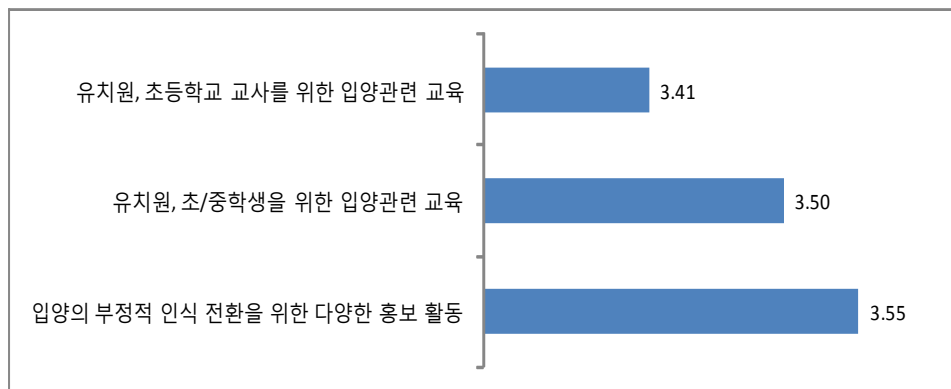
〈그림 4-35〉 입양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 욕구

(3) 지역사회 편견해소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으로는 입양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3.55점, 초등/중등 학생을 위한 교육이 3.50점, 초/중 교사를 위한 교육이 3.41점으로 나타났다.

<표 4-39> 지역사회 편견해소 교육 및 홍보

구분	필요치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	평균	S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입양관련 교육	3 (3.9)	6 (7.9)	24 (31.6)	43 (56.6)	3.41	.80
유치원, 초/중학생을 위한 입양관련 교육	3 (3.9)	3 (3.9)	23 (30.3)	47 (61.8)	3.50	.76
입양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3 (3.9)	3 (3.9)	19 (25.0)	51 (67.1)	3.55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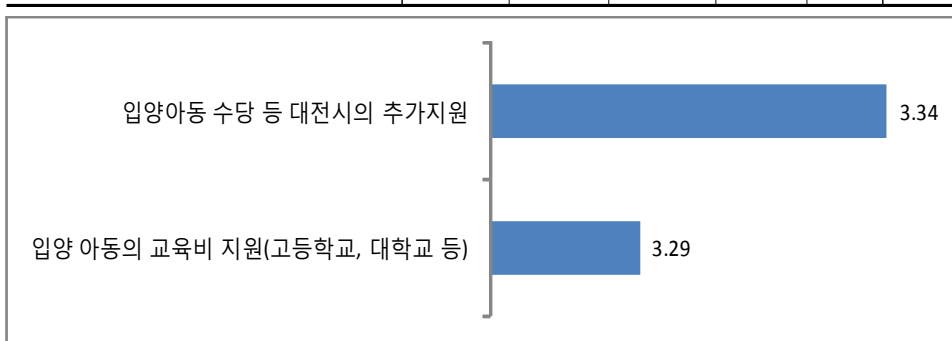
<그림 4-36> 지역사회 편견해소 및 홍보

(4) 입양가족을 위한 경제적 (추가)지원

- 입양가족을 위한 경제적 추가지원에 관한 문항에서는 입양아동수당 추가지원이 3.34점, 교육비 지원이 3.29점으로 나타났다.

〈표 4-40〉 입양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구분	필요치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	평균	S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입양아동 수당 등 대전시의 추가지원	4 (5.3)	7 (9.2)	24 (31.6)	41 (53.9)	3.34	.86
입양 아동의 교육비 지원(고등학교, 대학교 등)	5 (6.6)	6 (7.9)	27 (35.5)	38 (50.0)	3.29	.88



〈그림 4-37〉 입양아동의 경제적 지원

(5) 아동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욕구 차이

- 입양아동의 연령을 5세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욕구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교육과 학생교육에 있어서 5세미만 부모의 욕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41〉 입양아동 연령별 프로그램 지원 욕구차이

구분		N	평균	sd	t
아동의 발달과업	만5세 미만	50	2.92	.85	-.604
	만5세 이상	26	3.03	.72	
입양 아동의 발달과업	만5세 미만	50	3.20	.72	.269
	만5세 이상	26	3.15	.67	
입양아동 양육	만5세 미만	50	3.26	.75	.403
	만5세 이상	26	3.19	.56	
연장아, 장애아 상담	만5세 미만	50	3.20	.85	.597
	만5세 이상	26	3.07	.84	
생애주기별 전문 상담	만5세 미만	50	3.20	.69	1.679
	만5세 이상	26	2.88	.90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만5세 미만	50	3.26	.75	-.049
	만5세 이상	26	3.26	.82	
입양아동의 뿌리찾기	만5세 미만	50	2.88	.87	-.022
	만5세 이상	26	2.88	.86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교육	만5세 미만	50	3.56	.73	2.359*
	만5세 이상	26	3.11	.86	
유치원, 초/중학생을 위한 입양 교육	만5세 미만	50	3.62	.72	1.951*
	만5세 이상	26	3.26	.77	
다양한 홍보 활동	만5세 미만	50	3.66	.74	1.742
	만5세 이상	26	3.34	.74	
대전시의 추가지원	만5세 미만	50	3.36	.96	.251
	만5세 이상	26	3.30	.61	
입양 아동의 교육비 지원	만5세 미만	50	3.34	.93	.694
	만5세 이상	26	3.1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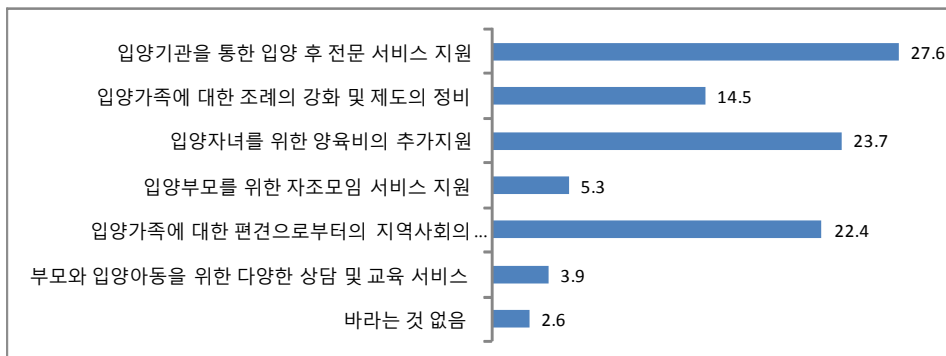
* p<.05

2) 입양가족 지원을 위한 대전시에 대한 정책요구도

- 입양가족들은 ‘입양 후 전문적 서비스 지원’ (27.6%) > ‘양육비의 추가지원’ (23.7%) > 지역사회에 부정적 편견의 인식 전환(22.4%) > 입양 조례 강화 및 정비(14.5%)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2〉 입양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요구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후 전문 서비스 지원 (입양 후 가족 전문상담가 등)	21	27.6	2	2.9
입양가족에 대한 조례의 강화 및 제도의 정비 (적극적인 예산의 지원 등)	11	14.5	16	23.5
입양자녀를 위한 양육비의 추가지원 (정부지원 외 지자체 추가지원 등)	18	23.7	11	16.2
입양부모를 위한 자조모임 서비스 지원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 등)	4	5.3	8	11.8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으로부터의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예, 학교, 지역주민 등의 교육)	17	22.4	19	27.9
부모와 입양아동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3.9	10	14.7
바라는 것 없음	2	2.6	1	1.5
기타	-	-	1	1.5
계	76	100.0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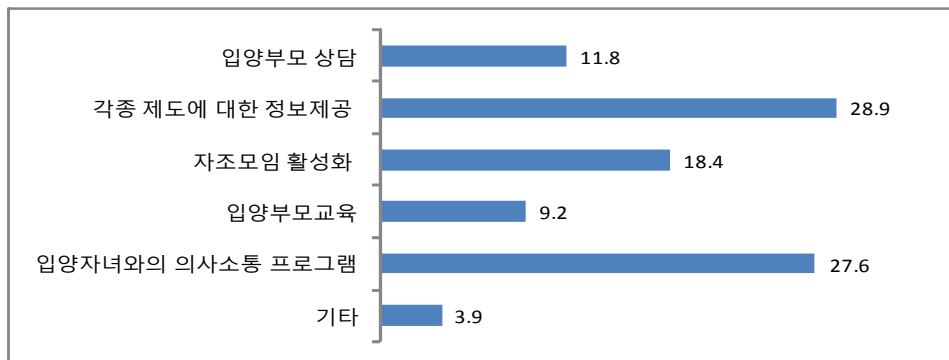
〈그림 4-38〉 입양가족 지원 욕구

3) 입양가족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분야

- 응답자의 입양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를 살펴보면,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이 28.9% > 입양자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27.6%) > 자조모임 활성화(18.4%) > 입양부모 상담(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입양 후 서비스의 필요 분야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입양부모 상담	9	11.8	6	8.7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22	28.9	10	14.5
자조모임 활성화	14	18.4	13	18.8
입양부모교육	7	9.2	19	27.5
입양자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21	27.6	15	21.7
입양아동의 뿌리찾기	-	-	5	7.2
기타	3	3.9	1	1.4
계	76	100.0	69	100.0



〈그림 4-39〉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분야

제3절 전문가 인터뷰(FGI) 조사

1. 관련 전문가 인터뷰 조사의 개요

- 관련 전문가 인터뷰는 2016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본 연구원 회의실 3층에서 개최하였음. 참여자는 대전(홀트)입양가족 대표, 입양기관(홀트), 담당 공무원, 입양관련 연구자 등 5명이 참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입양가족의 어려움과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제언 등이었음.
- 주요 인터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입양가족의 주요 어려움, 입양기관의 어려움, 관련 전문가의 입양가족 사후 지원 대책에 대한 부문으로 구성하였음.

2. 주요 인터뷰 결과

1) 입양가족의 어려움

- ① 입양부모는 일반인들이 입양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편견) 인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며, 입양가족 안에서도 입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
- **입양부모대표:** 저는 친생자녀도 없었고,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큰 부담 인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을 크게 느끼면 입양하기도 어렵거든요. (중략) 또 저희 가정들도 인식이 부족하고, “왜 일반인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이런 식으로 우릴 대우해 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 **입양기관 대표:** 인식개선에서 외부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양가족이 먼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요. (입양)자조모임 중에서도 오픈 마인드인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공개입양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 **입양부모대표:** 입양소재를 다루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요. ‘제네가 언젠가 배신하면 니(입양부모)가 그 상처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라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상처가 되요..제가 웃으면서 “뭔 걱정이나..내 자식인데” 라고 말하지만..왜 그런 생각을 했나 싶으면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 **입양부모 대표:** 입양부모들이 피해의식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는 좀.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일반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지..라든가. (중략) 굉장히 커요..전체적으로 인식부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영유아부터 정말 교육되지 않는 이상, 입양가족만 나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어디 홀트 기관만 나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시민단체서 나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 **입양기관 대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입양가족)내부 인식과 외부인식이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입양특별법)법 개정 이후에도 입양진행 과정에서도 25%-30%정도는 아직도 비밀입양을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주 갓난아기 때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랑 주면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여부에 대한 생각이 적어요. 공개가 좋다고 해도 입양가족 본인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입양가족 자체도 그런데 외부요인 때문만은 아니에요. 외부자체 인식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입양가족 자체 내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 ② 입양아동의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음. 가령, 입양아동이 청소년기 때,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양육과정에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음.

○ 입양부모 대표: 청소년기에 입양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입양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 해요. 일반가정에도 사춘기를 겪을 때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안의(입양가족 내) 입양아동에 대한 선입견도 클 수도 있어요.

- ③ 입양부모들은 입양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함.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이 공개되었을 때, 친구나 교사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함.

○ 입양부모 대표: 가장 어려운 점들은 교육의 부재라고 봐요..저는 엄마들도 교육의 부재고..그 선생님들..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특히 초등학교 교사들. 어떤 이런 사회적인 가족의 형태에 대해 잘 몰라요..왜냐하면 그전에 다 숨겨왔기 때문에 ..선생님 (입양애기를 하면) 울고 그러거든요... ‘저희 입양가정이에요’ (라고 말하면)..그럼 벌써..눈물이 그렇게 하시면서 측은하시면서.. ‘그 애가 그런 애였어요?’ 하면서 관심이 이게 부족하죠..그러다 보니깐..그래서 엄마들이 공개하려고 했다가, 선생님들의 태도 때문에 다시 이렇게 숨어 버리려고 해요..

- ④ 공개입양으로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가정은 입양가족 사후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비밀입양으로 인해 자조모임이나 교육이 안 되는 가정이 많아서 이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임.

○ 입양기관 대표: 자조모임에 나오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모들은 걱정이

안돼요..그렇게 안돼는 30-40%(비밀입양)의 부모들도 함께 교육받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저기까지 지원하려면 기관의)여력이 안돼요..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2) 입양기관의 어려움

- ① 입양기관은 운영상(인력과 재정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부재함. 특히 사후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과 재정은 없음.

○ 입양기관 대표: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중앙입양원을 설립하였으나, 결국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자조모임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입양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해요.

○ 입양기관 대표: 결국 이런 모든 가족을 포괄하기 이해서는 입양기관이 입양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입양기관이 사후 가족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원도 못 받고, 책임만 강조하고 있어서 어려워요. 가정위탁이라던지 시설이라던지 다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입양기관만은 지원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있고요. 입양기관은 입양 보내기만 하는데도 바쁘고, 입양 가족의 사후관리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죠.

- ② 입양가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입양가족 사후 전문기관이 필요함.

○ 입양기관 대표: 입양 보낸 후 4번의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요. 입양 보낸 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데, 가령,

현장에서 볼 때는 입양을 보내는 것보다 입양서비스 사후가 중요하지만 (여건이 안돼요)...

○ **입양전문가:** 사후지원서비스를 중앙+지방정부가 앞장서 줘야 하는데, 전달체계의 문제 면에서 입양가족과의 접근성에서 유리한 입양기관과 입양기관 실무, 입양 사후관리 제도가 있는데, 그 이후에 입양가족들이 살아나갈 때 누가 어떻게 개입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것이냐 그 게 포커스인데 누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입양원이 있긴 하지만, 국내 입양가족사후지원서비스는 전 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 입양가족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대책

① 입양기관의 전달체계를 통합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입양관련 전문가:** 입양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은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여러 곳의 기관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약간의 경쟁도 있는 듯합니다.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도 안되고 있는 면도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의 단일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중앙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홀트와 동방보다는 하나의 입양가족지원센터 식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되면 통제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고, 통제가 비슷하다면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②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제공에는 아동수당의 추가지급과 심리치료서비스 지원, 믿을 수 있는 입양관련 전문가 양성, 전세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

- **입양 전문가:** 과천, 성남에서는 10만원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적 지원의 실효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단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30%이상의 입양아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치료나 상담 등의 서비스 필요한 아동이 있을 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 **입양전문가:** 입양연구를 하고 있을 때, 심리치료기관을 믿기가 어렵고, 좋은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어요. 믿을만한 기관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관의 전문가가 입양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 내에 심리치료 전문가가 있는 경우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입양 전문가:** 양육비 수당을 증액하거나 연령을 높이거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아동의 고등학교 학교 지원, 대학교 특례입학 정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아동에 투자하기 위해서 입양을 특화하기 위한 2살이든 12살이든 15세만이지만, 연령대별로 필요한 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 **입양전문가:** 전세금 지원(위탁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아이를 입양할 때마다 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③ 기타: 대전광역시에서 입양기관에 1명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제공해 주기를 바람.
- **입양기관 대표:** 인력추가(인천광역시 홀트에 한명의 인력지원하고 있어요)가 필요해요. 다른 사무소보다 사후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 홀트사무소는 사후서비스를 할 만한 여건(인력, 재정)이 안되요. 인천광역시가 한명의 인력을 홀트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 5 장

나오는 글 : 입양가족 지원서비스의 정책과제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입양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5장 나오는 글: 입양가족 지원서비스의 정책과제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실태조사 연구결과 요약

1) 입양부모와 아동의 특성

- 본 조사의 응답자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가 70명(92.1%), 평균 혼인 기간은 14년이며, 결혼만족도는 4.19점(± 0.71)/5점,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8명(76.3%)으로 나타났다.
- 대전광역시 입양부모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입양부의 평균연령은 45.6세(± 4.9)이며, 입양모의 연령은 44.1세(±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2/4년제 대학(중퇴)졸업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모의 학력은 2/4년제 대학졸업자가 52.6%로 많았음. 부의 직업은 자영업(23.6%)과 사무직이(20.8%)이 많았으며, 입양모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음.
 - 입양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 ’ 이라는 응답자가 73.2%, 어머니는 77.6%가 좋다고 응답함. 입양모 중 2명(2.6%)이 ‘ 장애 있음 ’ 에 응답하였으며, 입양부의 4명(5.5%), 입양모의 6명(7.9%)이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대전광역시 입양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 입양 ’ 만을 통해 가족이 된 가구 수는 56가구(73.7%)이며, 가구당 1.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친생+입양자녀 ’ 를 통해 가족이 된 가구 수는 20가구(26.3%)로 가구당 자녀수는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만5세 미만의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65.8%, 만5세 이상 및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광역시 입양가구 76가구 중 입양된 아동은 90명이며, 이중 첫째자녀로 입양된 경우가 56명(62.2%), 둘째로 입양된 자녀가 19명(21.1%), 셋째 12명(13.3%), 넷째가 3명(3.3%)인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선호도는 여아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입양의 동기와 과정

- 입양부모들의 입양의 주된 동기는 ‘난임/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1명(67.1%)로 높았으며,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해서’는 12명(15.8%), ‘자녀를 추가적으로 원해서’라는 응답이 13.2%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입양부모의 유형 중에서, ‘친생+입양가족’의 입양의 주된 동기는 ‘자녀를 추가적으로 원해서’라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입양가족은 ‘난임/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았음.
- 입양가족이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한 1순위로는 까다로운 입양절차(17.1%) > 입양아의 출생배경에 대한 불안감(14.5%) > 부부간의 의견불일치(14.5%)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입양아동의 선택 시 고려한 사항에 대한 1순위로는 아동의 건강(32.9%) > 아동의 성별(25.0%) >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15.8%)의 순으로 나타났음.

3) 입양 후 양육의 어려움과 지원

- 입양아동의 양육 시 어려운 점 1순위 응답으로는 ‘양육 시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문항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의 정체성 형성 & 뿌리찾기’ 문항이 21.1%, ‘이웃 및 학교 등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13.2%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입양아동을 양육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는 양육에 관한 정보(25.0%) > 자녀적응 및 심리안정(22.4%) > 사회적 지지망(22.4%) > 양육 스트레스 감소(14.5%)의 순으로 나타났음. 입양 후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은 곳은 부부끼리 해결(42.7%) > 입양자조모임(33.3%) > 다른 입양부모(10.7%)인 것으로 나타났음.

4) 자조모임 참여 현황

- 입양부모들의 76.0%가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⁵⁾.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기간은 3년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68.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된 응답자도 26.3%로 나타났음.
- 1개월에 1번씩 모이는 경우가 60.7%, 2개월 또는 분기별로 1회씩 모이는 경우가 39.3%인 것으로 나타났음. 모임 만족도는 ‘만족함’ 이 63.0%, ‘매우 만족함’ 이 31.5%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밀입양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3%, 바쁜 일과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21.2%, 직장에 다녀서 15.8%, 모임을 잘 몰라서 15.8%인 것으로 나타났음.

5)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

- 응답자 중 공개입양은 86.8%, 비밀입양은 9.2%였으며,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경우’가 35.5%, ‘가족 외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32.9%, ‘대부분 알고, 아동이 아니는 교육기관’도 알고 있는 경우가 23.7%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개입양 하길 잘 했다는 응답자 72.3%, 공개입양의 장점으로 ‘가정 내 비밀이 없어서 신뢰관계 형성’이 72.3%, ‘입양관련 어려움을

5) 표본을 표집 할 때, 자조모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임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눌 수 있어서' 가 26.2%로 나타났다.

- 비밀입양가족이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입양아동의 상처 때문에' 라는 응답이 63.6%, '주변사람들이 입양가족을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라는 이유가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입양의 만족도 및 친생부모의 알 권리에 대한 생각

- 입양후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53.9%가 '매우 만족' 에 응답하였으며, 13.1%가 '보통+불만족' 이라고 응답하였음.
- 향후, 입양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경우가 3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경우가 39.5%,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에 대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3.4%로 매우 높았음.
- 친생부모가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입양부모들의 68.5%가 '전혀 + 별로 그렇지 않다' 고 응답했으며, 입양아동이 반드시 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의 51.3%가 '전혀 + 별로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함.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찾을 때, 대처방식에 대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는 응답이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입양후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3.56점(± 1.98)으로 비교적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 자율성의 하위 요인은 비교적 높았으며, 거부, 구조, 혼란, 강제는 낮거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

- 입양아동과 관련된 전문상담에 대한 욕구가 3.24점/ 입양아동 상담과 관련해서는 ‘심리 및 정서적 치료’에 대한 욕구가 3.26점/ 입양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3.55점/ 입양아동수당 추가지원이 3.34점으로 나타났다.
- 입양가족들은 대전광역시 가족지원 요청사항으로 ‘입양 후 전문적 서비스 지원’ (27.6%) > ‘양육비의 추가지원’ (23.7%) > ‘지역사회의 부정적 편견의 인식 전환’ (22.4%) > ‘입양조례 강화 및 정비’ (14.5%)의 순으로 제시하였음.
- 응답자의 입양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를 살펴보면,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28.9%) > 입양자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27.6%) > 자조모임 활성화(18.4%) > 입양부모 상담(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가 인터뷰 연구결과 요약

1) 입양가족의 어려움

- 입양부모는 일반인들이 입양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편견) 인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며, 양육과정 전반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령기 및 청소년기 때의 어려움을 제기함.
 - 또한 입양부모들은 입양과 관련한 교육 및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이 공개되었을 때, 친구나 교사들의 반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시함.
- 입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후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비밀입양가족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함.

2) 입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 입양기관은 운영상(인력과 재정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부재함. 특히 사후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과 재정의 어려움을 제시함. 대전광역시 차원의 입양가족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한 인력 및 예산지원이 요청된다고 제기함.

3) 입양가족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 입양기관의 전달체계를 통합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는 아동수당의 추가지급과 심리치료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입양관련 (치료와 상담)전문가 제공, 입양가족 전세자금 지원 등을 제시함.

제2절 입양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입양 가족의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국내입양가족의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대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국내입양의 활성화 및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취학 전과 학령기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입양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 실시하거나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입양부모의 입양 전후 부모교육 및 사후관리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와 정부의 차원에서 다양한 입양

홍보와 입양기관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양진희, 2011).

1)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필요

- 입양은 ‘나와는 무관한 일’ 혹은 ‘불임’과 관련된 생각이 있고, 더 나아가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사고가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한 국내입양 활성화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과거에 비해 입양에 대한 편견은 개선되었으나, 입양가족에게는 아직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현실임.
- 입양부모로서 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여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 입양은 개인, 가족, 집단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화 및 정책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되는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며(박미정, 2014),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인식개선 사업이 요청됨.
-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입양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옥수선 외, 2013).

2) 입양가족의 생애주기별 사후지원 사업의 필요성 인식

-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을 위한 입양사후 지원사업은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체계화시키고 입양기관과 입양자조모임이 협력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지원은 타 사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않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후서비스 지원은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애주기별로 입양아동의 관찰과 지도, 학습·특기적성·진로활동 지원, 아동과

청소년의 고충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소규모 가족모임, 아동상담, 아동 집단상담 활동, 반편견 입양교육, 입양인포럼, 입양가족 축제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야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입양기관과 입양부모들이 협력하고 생활권 및 지역모임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3)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

- 입양아동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16세까지 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의료급여도 24세까지 연장하여 제공해주며, 유형(연장아, 장애 등)별 아동수당 지원금액의 차별화나 아동발달지원계좌와 같은 형태의 아동연금보험의 지원, 공공기관의 아동업무 전문성 확보 등도 필요함.

4) 입양 사후 복지서비스 부서 필요

- 독립된 ‘입양 사후 복지서비스 부서’를 신설하고 입양후 복지서비스 담당을 위해 가정조사 및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상담원과 별도의 입양 사후 서비스 전문가를 교육 및 채용해야 할 것임. 이러한 기관은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개인상담, 위기특별상담, 지지집단활동, 자조집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양 후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임(김형모, 2001).
- 이러한 부서의 설치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양가족 사후서비스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입양아동 및 부모교육, 입양삼자의 상담, 입양아동 및 가족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중요함.

2. 대전광역시의 정책 과제

1) 사후 입양가족서비스 지원에 대한 관심 필요

- 본 조사결과 중에서 입양부모들이 입양결정시 어려운 부분은 ‘까다로운 입양절차’와 ‘양육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입양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입양부모의 관점에서 사후 입양가족서비스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에서, 입양부모들은 입양 후, ‘입양아동의 뿌리찾기와 양육과정에서의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호소하였음. 현재,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도움 받는 곳은 ‘부부끼리 해결’하거나 ‘입양자조 모임’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입양가족들에게 공식적·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요약하자면, 입양가족은 아동이 성인기에 접어들기까지 입양가족으로써 겪어야 할 독특한 발달과업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입양가족이나 자조모임을 통한 소극적인 해결차원을 넘어서서 입양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2) 입양의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체계 필요

- 입양과 관련된 교육은 크게, 입양 내부와 입양외부 교육으로 구분됨. 가령, 입양관련 내부 교육으로는 당사자인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고, 외부교육으로는 입양가족을 둘러싼 관련 체계, 즉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관련 공무원, 일반인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음.
- 입양아와 부모교육은 입양기관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입양부모는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입양관련 이슈 및 효과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또한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숨겨져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입양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본 조사결과에서 공개입양의 단점으로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담’ (23.8%)이 많았고, 아동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웃, 학교 등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13.2%)이 있다고 제시함. 또한 입양부모들은 대전광역시에 대한 지원 요구로 ‘편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 (22.4%)를 세 번째로 제시하였음.
 -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생애전반에 걸쳐, 교과과정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박미정, 2014).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반편견입양’ 강사의 양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며(가령, 현재 한국입양홍보회의 반편견 입양강사양성 과정이 있음), 두 번째로 대전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를 위한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입양과 관련된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입양의 개념 및 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그리고 일반인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함.
- 또한 대전광역시는 성공적인 입양가족의 사례를 찾아내고, 입양 홍보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입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행복하게 성장한 입양인과 입양가족 이야기를 지역의 TV, 신문, 잡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입양부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입양’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입양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지속되어야 함. 특히 입양부모와 아동이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교사, 심리치료사, 행정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의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지침의 마련이 필요함(권지성 외, 2016).

3) 입양아동 수당의 추가적 지원 검토

-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6세까지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 강화 차원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추가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결과, 대전시 입양가족들은 ‘대전광역시의 양육비 추가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현재, 대전시 입양부모들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6세, 어머니가 44세(전업주부가 많음)로 중장년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퇴직 후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김유경 외(2010)의 연구에서도 입양의 저해요인 중 하나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지적한바 있음.
- 또한 본 조사결과 향후, 입양의사가 있는 가정이 34.2%로 높았는데, 지속적으로 입양을 하는 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입양가족 추가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과천시과 성남시 등이며, 정부 지원 이외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4)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사후지원센터’ (안) 설치 검토

- 권지성 외(2016)는 입양 사후서비스가 지역별, 입양기관별 편차가 있어서 지역별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전국적인 차원의 대규모 캠프나 교육 같은 경우, 지리적 접근성으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지역차원의 입양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인적·물적 지원이 요청되며, ‘입양가족 사후지원센터(안)’와 같은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결과, 입양부모들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후 전문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27.6%로 가장 높았음.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 입양가족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양가족 사후지원센터(안)’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 입양가족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입양아동의 전문상담’, ‘입양아동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편견해소’에 관한 욕구가 높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함.
- 입양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 조언 및 상담, 입양전후 교육,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기관은 전무함. 이러한 기관은 입양가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음으로 입양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입양가족 사후지원센터의 설립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부문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어져 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현재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역의 입양기관은 입양제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버겁기 때문에 입양가족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함.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기관에 입양전문가를 파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 가령, 인천광역시에서는 입양기관(홀트)에 입양가족 사후지원 서비스 인력으로 1명의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5)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지원

- 본 조사결과, 자조모임 참여율은 76.0%로 높았으며, 참여 횟수는 매월 1회인 경우가 많았으며, 만족한다는 비율은 63.0%로 나타났다. 공개입양 부모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선배 입양부모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입양 아동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부모들끼리의 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 입양가족에게 자조모임은 입양가족 당사자로서의 자발적 의지와 연대, 지속적인 경험 및 정보교류, 사회적지지 형성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작은 집단으로 공개입양가족에게는 중요한 단체임. 자조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조모임 구성원간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협력과 의지가 중요하며, 더 나아가 대전광역시의 자조모임 지원은 자조모임 확대와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대전지역의 공개 입양가족 자조모임은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가령, 자조모임은 소수의 지역 대표자와 부모들이 중심이 되다보니 모임공간의 협소(1개 모임당 20가정 내외임)와 정보부족, 회비운영의 어려움,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대전지역의 입양가족 자조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홀트, 동방, 엠팩 등) 자조모임의 리더양성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또한 지역마다 거점센터를 선정하고, 모임을 기획하고, 홍보, 장소협조, 입양가족 연락, 강사 섭외 등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함. 특히 지역모임을 통해 유용한 강의나 정보, 입양가족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권지성 외, 2016).

6) 기타 지원정책

- 가정위탁가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사업(국토교통부)과 같은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자녀가 늘어갈수록 입양가족의 주거도 협소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입양자녀 1명을 더 입양할 경우에 전세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양아동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거나(예: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입양아동의 고등학교 학비지원이나 대학교 입학 시 특례입학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양아동이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커서, 노령 및 질병으로 인해 입양부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입양가족의 휴식 및 휴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입양부모가 양육부담을 느끼는 경우,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거나 또는 지지집단을 통해 부모역할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중앙입양원, 2014).

참고문헌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2). 345-366.
- 김근용(2013). 입양가족. 블로그: 사회복지와 인권
- 김대열(1999). 국내입양 사후관리 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45. 143-163.
- 김미숙, 김효진, 전진아, 안재진, 김유경, 신윤정, 임성은(2013). 국외 입양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화(2003). 국내입양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경 외(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모(2001). 입양후 복지서비스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01.1).
- 대전광역시(2016). 입양가족 통계 내부자료.
- 박미정(2014). 국내 입양현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복지동향.
- 박인선(2001). 입양에 대한 이해. 복지동향.
- 백경숙, 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아동과 권리. 5(2). 81-95.
- 보건복지부(2014). 아동보호제도 평가 및 개편방안 마련 연구.
-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5년). 국내외 입양현황.
- 안재진, 최운선, 김세원(2013). 국내 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 옥수선, 류기형(2013). 국내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인식 유형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31-156.
- 이은정(2012). 국내 아동입양 현황과 정책과제. 경남발전.
- 장덕희, 이경은(2011). 입양가족의 가족형성 경험과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159-181.
- 전경숙(2013).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 문제와 향후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3.
- 정교영, 신희천(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 정순란(2005). 국내입양사업과 공개입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옥희(2011). 한국 입양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용주(2011). 한국인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입양원(2014).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9차년도 조사. 서울: 중앙입양원.

부 록

부록 1 : 입양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2013년)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산하 연구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입양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입양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입양가족지원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대전광역시 입양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오니,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됩니다(통계법 제 33조).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대전발전연구원

연락처: 장창수, 배지연

E-mail: jybae413@daum.net

팩스: 042-530-3508

▶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시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서구 ② 중구 ③ 동구 ④ 대덕구 ⑤ 유성구

3. 귀하의 연령과 학력은?

입 양 부	만____세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년제 및 4년제 대학졸업 ③ 대학원졸업 ④ 기타(무엇_____)
입 양 모	만____세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년제 및 4년제 대학졸업 ③ 대학원졸업 ④ 기타(무엇_____)

4. 귀하의 직업은?

입 양 부	① 없음() ② 전문직 () ③ 기술직 () ④ 사무직() ⑤ 자영업() ⑥ 생산직 () ⑦ 교직() ⑧ 목사 및 전도사() ⑨ 기타()
입 양 모	① 없음() ② 전문직 () ③ 기술직 () ④ 사무직() ⑤ 자영업() ⑥ 생산직 () ⑦ 교직() ⑧ 목사 및 전도사() ⑨ 기타()

5. 귀하의 건강상태는?

입 양 부	건강상태: ① 매우 나쁨 ② 나쁜편임 ③ 좋은 편임 ④ 매우 좋음 장애여부: ① 있다(자세히:) ② 없다 질환여부: ① 있다(자세히:) ② 없다
입 양 모	건강상태: ① 매우 나쁨 ② 나쁜편임 ③ 좋은 편임 ④ 매우 좋음 장애여부: ① 있다(자세히:) ② 없다 질환여부: ① 있다(자세히:) ② 없다

6.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및 별거 ④ 미혼(독신)
⑤ 재혼 ⑥ 기타()

7. 귀하의 결혼 기간은? (____년 ____개월)

8. 귀하는 현재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9. 귀하의 주관적 생활수준은?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10. 귀하의 종교는?

① 종교 없음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_____)

▶ **II. 다음은 귀하의 친생 및 입양자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자녀수	친생 자녀 (아들_____명/ 딸_____명)			
	입양 자녀 (아들_____명/ 딸_____명)			
2. 연령 및 성별 (친생 및 입 양자녀의 출 생 순 위 별 로 기입하여 주 십시오.)	현재 연령	입양당시 연령	성별	입양여부
	첫째아이 세/ 개월	세/ 개월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친생 <input type="checkbox"/> 입양 <input type="checkbox"/>
	둘째아이 세/ 개월	세/ 개월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친생 <input type="checkbox"/> 입양 <input type="checkbox"/>
	셋째아이 세/ 개월	세/ 개월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친생 <input type="checkbox"/> 입양 <input type="checkbox"/>
	넷째아이 세/ 개월	세/ 개월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친생 <input type="checkbox"/> 입양 <input type="checkbox"/>
3. 건강상태 (친생 및 입 양자녀의 출 생 순 위 별 로 기입하여 주 십시오.)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① 건강한 편 ② 허약한 편 ③ 질병있음 ④ 장애있음 ⑤ 기타(_____)	① 건강한 편 ② 허약한 편 ③ 질병있음 ④ 장애있음 ⑤ 기타(_____)	① 건강한 편 ② 허약한 편 ③ 질병있음 ④ 장애있음 ⑤ 기타(_____)	① 건강한 편 ② 허약한 편 ③ 질병있음 ④ 장애있음 ⑤ 기타(_____)

4. 귀하는 최근 1년안에 입양가족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참여 () ---> (4-1, 4-2, 4-3번 문항에 답변)

② 참여안함 () ---> (4-4번 문항에 답변)

(♠ 입양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분)

4-1. 입양가족 자조 모임 참여 기간

- ① 1년 미만 () ② 3년 이하 () ③ 5년 이하 () ④ 5년 이상 ()

4-2. 입양가족 정기 자모모임 횟수(예시. 한달에 1회)

(월----- 분기별 -----)

4-3. 현재 참여하는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자세히: _____)
② 만족하지 못한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입양가족 모임에 참여 안하고 계신 분)

4-4. 입양가족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밀입양이라서 ②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③ 자조모임이 있는지 몰라서
④ 자조모임의 필요성이 없어서 ⑤ 자조모임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⑥ 기타()

5. 귀하가 아동을 입양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난임/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 ②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서
③ 자녀가 이미 있지만 추가적으로 자녀를 원해서 ④ 가계 계승을 위해서
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해서 ⑤ 신앙적인 이유로
⑥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⑦ 기타 (무엇_____)

6. 귀하가 입양을 결정 내리기까지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부부간의 의견 불일치 ② 가족의 반대
③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④ 친생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감
⑤ 까다로운 입양 절차 ⑥ 입양아의 출생배경에 대한 불안감

- ⑦ 입양아 양육 책임에 대한 부담감(부모정체성 및 경제력)
- ⑧ 친생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 ⑨ 기타 (무엇_____)

7. 귀하는 입양 당시 아동의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셨습니다?

(1순위: 2순위:)

- ① 아동의 연령 ② 아동의 성별 ③ 아동의 건강
- ④ 아동의 외모 ⑤ 아동의 혈액형
- ⑥ 친생부모와 관련된 건강, 외모, 학력, 나이 등
- ⑦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입양기관과 상담함
- ⑧ 기타 (무엇_____)

8. 귀하께서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입양 아동이나 가족 간의 적응하는 과정이 어려움
- ②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가 형성의 어려움
- ③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움
- ④ 아동의 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가 어려움
- ⑤ 아동이 정체성 형성이나 뿌리찾기 과정 등에 대한 고민이 어려움
- ⑥ 이웃, 학교 등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예; 입양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 등)
- ⑦ 양육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몰라서 어려움
- ⑧ 기타 (구체적으로_____)

9. 귀하는 입양 후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걱정거리를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으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부부끼리 해결 ② 입양자조모임
- ③ 입양기관 ④ 다른 입양 부모

- ⑤ 입양관련 인터넷 카페 등 ⑥ 일반 상담기관
 ⑦ 가족이나 친구 ⑧ 기타 (누구_____)

10. 귀하는 입양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부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양육 스트레스 감소
 ③ 사회적 지지(지원)망 ④ 위로와 휴식
 ⑤ 자녀적응 및 심리안정 ⑥ 주변인의 편견 해소
 ⑦ 기타()

11. 귀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입양 보낸 후, 아동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르겠다 ②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③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④ 그렇게 생각한다 ⑤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12. 귀하는 입양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뿌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르겠다 ②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③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④ 그렇게 생각한다 ⑤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13. 귀하는 입양아동이 친생부모 찾기를 원할 때(뿌리찾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아직 모르겠다 ②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③ 소극적이라도 도울 것이다 ④ 뿌리찾기를 반대한다

▶ **Ⅲ. 다음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 현재, 입양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1점 없다 => 10점 많다)



2. 다음은 부모로서 스스로의 양육에 대한 만족도(양육효능감)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3.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4.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5.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6.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7. 이따끔 나는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8.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9. 나는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1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11. 나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듣기 힘들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2.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3. 우리 아이에게 뭔가 하게 하려면,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				
14. 나는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15.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 IV. 다음은 귀하의 입양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현재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형태(비밀유지)는?

- ① 비밀입양 ② 공개입양 ③ 기타()

2. 귀하는 현재,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불만족한다(♠->불만족하는 이유는?)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이유는?)

3. 앞으로 다른 아동을 더 입양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그렇지 않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입양 의사가 있다

4. 귀하는 입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입양을 추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현재,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 ① 비밀입양이다
- ② 부부 및 직계가족만 알고 있다
- ③ 가족 외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까지 알고 있다
- ④ 알고 지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 (직장동료, 이웃 등)
- ⑤ 대부분이 알고 있고, 아동의 교육기관 담당자(담임교사, 보육교사 등)까지 알고 있다
- ⑥ 방송출연 등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 상태이다.

6. (공개입양이신 분만 응답) 입양 공개 전과 후, 공개입양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공개입양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 6-1번 으로)
- ② 공개입양을 한 것을 후회한다 (▶ 6-2번 으로)
- ③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6-1번과 6-2번 모두 응답)

6-1) 공개입양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공개입양의 좋은 점)는?

- ① 가정 내 비밀이 없어서 신뢰로운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다
- ② 다른 입양가족들과 입양아동들을 만날 수 있다
- ③ 입양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어 당당하다
- ⑤ 기타 () ※직접 작성해주세요

6-2) 공개입양을 한 것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공개입양의 나쁜 점)는 무엇입니까?

- ① 선행으로 여기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 ② 아이가 입양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 ③ 아이가 입양사실을 밝히는 것을 싫어한다.
- ④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자녀양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
- ⑤ 기타 () ※직접 작성해주세요

7. (비밀입양이신 분만 응답)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동이 입양사실을 알고 상처받을까봐서
- ② 주위의 친인척이 아동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을 야기할까봐
- ③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 ④ 아동이 나중에 친생부모를 찾게 될까봐
- ⑤ 기타 ()

▶ V. 다음은 입양 가족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원해 주길 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다음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를 위한 욕구조사입니다.

입양아동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치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필요함
입양부모 교육 및 전문상담	(일반적인)아동의 발달과업에 대한 교육				
	입양과 관련된 아동의 발달과업에 대한 교육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된 전문 상담				
	연장아, 장애아 등을 입양한 가족을 위한 상담				
입양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	입양아동의 생애주기별 전문 상담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예: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입양아동의 뿌리찾기 과정에 대한 상담				
지역사회 교육홍보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입양관련 교육				
	유치원, 초/중학생을 위한 입양관련 교육				
	입양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경제적 지원	입양아동 수당 등 대전시의 추가지원				
	입양 아동의 교육비 지원(고등학교, 대학교 등)				
	기타(무엇-----)				

2. 입양가족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후 전문 서비스 지원(입양 후 가족 전문상담가 등)
- ② 입양가족에 대한 조례의 강화 및 제도의 정비(적극적인 예산의 지원 등)
- ③ 입양자녀를 위한 양육비의 추가지원(정부지원 외 지자체 추가지원 등)
- ④ 입양부모를 위한 자조모임 서비스 지원(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 등)
- ⑤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으로부터의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예, 학교, 지역주민 등의 교육)

⑥ 부모와 입양아동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⑦ 바라는 것 없음

⑧ 기타(자세히:)

3. 귀하는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입양부모 상담 ②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③ 자조모임 활성화 ④ 입양부모교육

⑤ 입양자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⑥ 입양아동의 뿌리찾기

⑦ 기타 (무엇_____)

♥ 귀중한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2013년)

[시행 2013.11.08.]

(제정) 2013-11-08 조례 제 4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

는 1명당 200만원

제6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7조(신청안내)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정보제공) 시장은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대전광역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조례 제4242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의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

정책연구보고서 2016-26

대전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 개발 연구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전화 / 530-3545

팩스 / 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처 :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ISBN : 979-11-6075-000-3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